



5 스포츠
잠실야구장 철거, 그동안 야구는 어디서?

8 사회
학령인구 감소, 우리 대학의 대비책은?

10 기획
여기가 한국인가요?

12 특집
미래 없는 20대의 소비습관

먼지 덮인 학생 인권 교내 공사, 과연 학생을 존중했는가?

지난 여름 방학부터 가을이 오기까지 한국체육대학교는 유독 시끄러웠다. 내진 보강 공사, 냉난방기 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의 특성상 여름 방학이 짧으나 공사 규모는 상당히 컸다. 그래서 2학기 개강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건 불가피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과연 존재했는가?

원지호 기자 jiho305406@naver.com

먼지가 가득했던 내진 보강 공사

내진 보강 공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 말에 시작해 10월 13일에 완공했다. 이는 국가에서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었다. 대다수 국립대학은 일찌감치 공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전국체전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를 미루다 올해가 돼야 시작됐다. 그러나 학교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돌연 비대면 수업 전환을 알리며 ‘호우로 인한 공사 지연’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차 팀장은 “기존 계획인 10월 13일보다 완공을 앞당기려 했으나 호우로 인해 기간을 줄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할 수 있는 강의실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교무과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학교는 3주간 비대면 강의 진행 후 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된 탓에 학생들은 학교에 날리는 분진 가루로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A 학우는 “대면 전환 이후 피부과를 다니고 약을 먹어도 피부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른 학우들도 “천식이 더 심해진 것 같다.”, “마스크를 써도 기침이 계속 나옴”이라고 말하며 “목이 칼칼하다.”라고 얘기하는 등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험 기간에도 끊이지 않았던 소음

노후 배수로 공사는 본관 내진 보강 공사가 끝난 10월 13일 이후부터 시작했다. 이 또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안전 인프라 정책 사업이다. 현재는 2단계 공정 진행 중으로 작년에 실시한 1단계 당시에는 정문 쪽 배수로만 공사를 진행했었고, 이번에는 본관 주변

을 정비하고 있다. 차 팀장은 “1년에 국가에서 정책 사업을 용도로 나오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공사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공사로 불편함을 겪은 B 학우는 자세한 얘기를 들려줬다. 해당 공사를 시작한 지난 19일 오전 본관 4층에서 시험을 봤다는 그는 “시험을 보는 1시간 동안 밖에서 망치질하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이 소리로 인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고, 다른 학우들도 같은 이유로 힘들었다며 하소연했다.

방치된 동아리방

냉난방기 공사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본관과 필승관 등 약 490개의 오래된 냉방기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름 방학 동안 교체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전력 효율 등급의 문제로 기종을 바꾸게 되며 추가 전기 공사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강의실과 교수연구실 등을 먼저 조치했고, 동아리방은 뒤늦게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온 학생들은 곰팡이가 가득한 동아리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와중에 인부들이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아리 용품에 곰팡이가 번졌다.”, “냉난방기 공사 중 발생한 먼지가 가루가 동아리방에 그대로 방치돼있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차 팀장은 “방학 중에 시작한 공사였기에 상대적으로 급한 곳부터 전기를 채웠다.”라고 말한 뒤 “공사 인부들에게 학생이 우선임을 당부했으나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며 불편함을 겪었을 학우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내진 보강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합동강의실의 모습이다. 분진과 쓰레기가 나뒹굴고, 철골 지지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 : 원지호 기자

갑자기 방을 빼라고?

생활관에 유해가스가 누출된다는 이유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우들이 적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공사에서 생활관장은 학생들에게 강제로 집을 빼라고 통보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소식을 들은 체육학과 학생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생활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집은 그대로 보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건 변하지 않았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도 이 내용이 큰 화두가 됐다. 학우들은 “속소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국체전 컨디션 조절도 해야 하는데 신경 쓸 것이 너무 많다.”라고 언급하며 학교의 행정 처리 방식을 거세게 비판했다.

학생들의 반응

기사를 작성 중인 10월 27일 현재도 학교는 본연의 모습보다 공사 현장에 가까워 보인다. 많은 자제는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통행로에 쌓여있고, 그것들을 자르는 소리는 건물 외벽을 지나 강의실까지 새어 들어온다. 학생들은 역시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 학우는 끝까지 않는 공사에 “시작한 지 꽤 된 것 같은데도 소음이 여전하다. 분명 학우들의 수업 시간을 최대한 피해서 공사하겠다고 말했으나 그렇지 않다. 여기가 학교인지 공사판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D 학우는 “학우들을 위한 공사라면 언제나 환영이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좋지 못했던 공사 시기에 아쉬움을 보였다.

우리 학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유독 올해 많은 공사가 이뤄졌다. 내진 보강 공사부터 생활관 공사까지. 물론 꼭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공사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공사하는 장소는 한국체대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공사를 앞두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학우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지 않았을까? 여태껏 있었던 공사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에 존재한다. 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이번 공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그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니,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체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48개 메달 획득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 펼쳐졌다. 본교 재학생 37명과 졸업생 107명이 한국 선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학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개를 수확했다.

임시현 학우(체육 22)는 양궁 리커브 종목에 휩쓸었다. 여자 개인전 및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을 모두 금메달로 마무리했다. 아시안게임을 통틀어 37년 만에 나온 양궁 3관왕이다. 이러한 활약으로 임시현 학우는 대한체육회가 선정한 ‘한국 선수단 여자 MVP’를 차지했다.

이재성 학우(체육 20)와 이정태 동문(39회)은 육상 남자 400M 계주 동메달을 따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이 대회 같은 종목에서 입상한 건 37년 만의 일이다. 38초 74로 코스를 주파해 한국 타이기록을 작성했다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체대에 첫 금메달을 안긴 종목은 골프 남자 단체전이다. 임성재 학우(체육 17)와 조우영 학우(체육 20) 그리고 장유빈 학우(체육 21)가 합작했다. 이날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한 임성재 학우는 남자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김하윤 동문(42회)은 유도 여자 개인전 +78kg급 왕좌에 앉았다. 같은 체급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아시안게임 정상에 선 건 역사상 처음이다. 한국이 이번 대회 유도 종목에서 얻은 ‘유일한 금메달’이라 더욱 값어치가 있다.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장준 동문(43회)이 남자 개인전 -58kg급 우승으로 포문을 열었다. 박우혁 동문(43회)은 남자 개인전 -80kg급을 석권했다. 여자 개인전에 나선 이다빈 동문(39회)과 김유진 동문(43회)도 각각 +67kg급 은메달과 -57kg급 동메달을 보냈다. 서건

우 학우(체육 22)는 박우혁, 이다빈 동문과 팀을 이뤄 혼성 단체전 은메달을 쟁겼다.

김선우 동문(38회)은 근대 5종 여자 개인전에 출전해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나온 메달이다. 여자 단체전에서도 김세희 동문(38회), 성승민 학우(체육 23)와 함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한국체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이제 우리 대학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한다. 김진해 훈련학생처장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경기를 분석했다. 어떤 종목이 출중하거나 부족한지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이번 대회의 영광이 파리 하계올림픽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원재 총장은 대회 기간 내내 누구

보다 가까이서 우리 대학 선수들을 지켜봤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항저우로 향해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아래는 그가 귀국 후 남긴 인사말 전문이다.

송현일 부장기자 click21@naver.com

문원재 총장 인사말 전문

우리 대학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승패 결과와 메달의 색을 떠나 모두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모습 자체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대5종 성승민 학생의 말이 장에물을 거부해 실격을 받은 것. 속사 권총에서 양지인 학생이 표적지 교체로 인해 메달 색깔이 바뀐 것.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알기에 안타까움을 같이했습니다. 마지막 날 양궁 임시현 학생

이 화살을 쏜 직후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텐!”, “텐!” 하는 심판의 소리에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37년 만에 탄생한 3관왕의 영광은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자부심입니다. 경기 직후 함께 관람한 체육계 모든 관계자로부터 축하받았고, 이는 곧 본교의 존재감과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끝으로,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고전분투한 학생들 그리고 대회 출전을 위해 열심히 지도해 주신 모든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과방 사용하게 될 7개 학과 결정

중앙운영위원회 “10개 학과 중 투표율과 찬성 학우 비율로 학과방 배정”



학우들이 각자 목적에 맞게 학과방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 원지호 기자

9월 25일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임기성 총학생회장, 이하 ‘중운위’)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학과방을 사용하게 될 7개 학과를 선정했다. 총 10개 학과 중 선정된 7개 학과는 경기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운동건강관리학과, 특수체육교육과다.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공연예술학과는 제외됐다.

당시 중운위 회의에서는 3시간이 넘도록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학과방 사용 학과 선정이었다. 각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를 대표해 학우들의 의견을 대변했다. “학과만의 공간이 없는 학과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 “투표 비율이 높은 학과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등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 “학과 배정안을 전체 공개 후 설문이나 토론회를 열자.” 등 선부르게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말도 오갔다.

결국 10개의 학과 모두 동의하는 방안으로 학과방 사용 학과가 결정됐다. 학과 선정 기준은 △학과방 투표율 △학과방 이용을 찬성한 학우의 비율이다. 회의를 주관했던 임기성 총학생회장은 “처음에는 ‘학과만의 공간 보유 여부’를 중점으로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학과방 취지가 학생복지였기에 ‘학우들이 정말 이용하고 싶은지’를 생각하게 됐다.”라고 기준을 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학과방은 학과의 공지 이후 학생팀을 통해 필요한 가구를 배치하고 입실하게 된다. 학과방 사용이 승인된 지 2주 정도가

지난 10월 26일 현재 학과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이미 학과 공지가 올라왔고 공식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말할 박정민 학우(운동건강관리 22)는 학과방의 첫인상으로 “신관에 있는 방이라 쾌적하고 깔끔했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동아리방이 활성화되어 있어 학과방 이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라고 사용 후기를 말했다. 아직 학과 공지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김선아 학우(사회체육 23)는 “수업 사이 바는 시간에 편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학과방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다. 또 많은 학생을 거치며 청결하게 유지될지 걱정이다.”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냈다.

원지호 기자 jho305406@naver.com

2023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 계정별 세입예산 총괄표

연도 : 2023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금액단위 : 천원, %)	
과목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	
계정	관	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률
합계			68,555,667	100.0%	66,759,565	100.0%	65,691,345	100.0%	1,796,102 2.7%
(국가지원금) 등 계정			41,637,210	60.7%	41,635,158	62.4%	41,420,277	63.1%	2,052 0.0%
	이전수입		41,637,210	60.7%	41,635,158	62.4%	41,420,277	63.1%	2,052 0.0%
110		중앙정부이전수입	41,637,210	60.7%	41,635,158	62.4%	41,420,277	63.1%	2,052 0.0%
세계잉여금			-	0.0%	-	0.0%	-	0.0%	0 0.0%
310		순세계잉여금	-	0.0%	-	0.0%	-	0.0%	0 0.0%
(자체수입금) 등 계정			26,918,457	39.3%	25,124,407	37.6%	24,271,068	36.9%	1,794,050 7.1%
	이전수입		-	0.0%	-	0.0%	-	0.0%	0 0.0%
12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0.0%	-	0.0%	-	0.0%	0 0.0%
자체수입			17,796,310	26.0%	16,345,973	24.5%	16,228,300	24.7%	1,450,337 8.9%
210		교육활동수입	11,131,644	16.2%	11,131,644	16.7%	10,867,644	16.5%	0 0.0%
220		전형료 및 논문심사료	299,117	0.4%	299,117	0.4%	299,117	0.5%	0 0.0%
230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300,100	0.4%	300,100	0.4%	300,100	0.5%	0 0.0%
240		부담금	269,000	0.4%	269,000	0.4%	269,000	0.4%	0 0.0%
250		자산매각수입	20,000	0.0%	20,000	0.0%	20,000	0.0%	0 0.0%
260		이자수입	115,000	0.2%	115,000	0.2%	115,000	0.2%	0 0.0%
270		제재금수입	-	0.0%	-	0.0%	-	0.0%	0 0.0%
280		기타수입	5,661,449	8.3%	4,211,112	6.3%	4,357,439	6.6%	1,450,337 34.4%
세계잉여금			8,726,034	12.7%	8,726,034	13.1%	8,042,768	12.2%	0 0.0%
310		순세계잉여금	8,542,576	12.5%	8,542,576	12.8%	8,042,717	12.2%	0 0.0%
320		보조금 등 사용잔액	183,458	0.3%	183,458	0.3%	51	0.0%	0 0.0%
330		전년도이월금	-	0.0%	-	0.0%	-	0.0%	0 0.0%
내부거래 및 기타			396,113	0.6%	52,400	0.1%	-	0.0%	343,713 655.9%
410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96,113	0.6%	52,400	0.1%	-	0.0%	343,713 655.9%

2023 대학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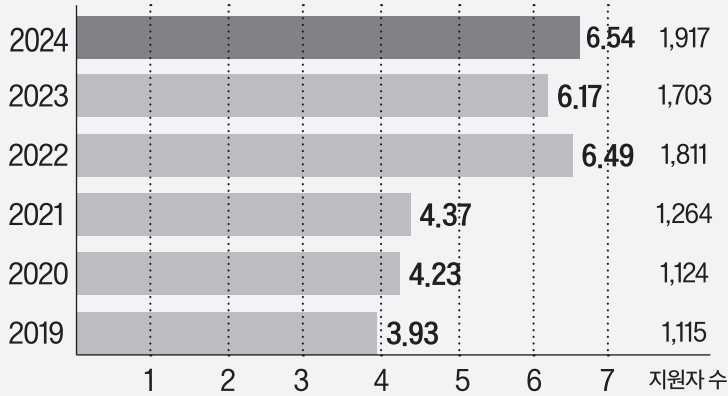
구분 : 2023		예산구분 : 대학회계(국가지원금, 자체수입금)							(단위 : 천원)	
계정	분야	정책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계	68,555,667	100.0%	66,759,565	100.0%	65,691,345	100.0%	1,796,102	2.7%
		02 인적자원운용	26,261,774	38.3%	26,260,722	39.3%	25,333,546	38.6%	1,052	0.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3,918,829	5.7%	3,669,436	5.5%	3,878,736	5.9%	249,393	6.8%
		04 산학연활동지원	611,373	0.9%	611,373	0.9%	611,373	0.9%	0	0.0%
		05 교육복지지원	5,775,362	8.4%	5,550,452	8.3%	5,596,892	8.5%	224,910	4.1%
		06 학교교육여건개선	17,590,281	25.7%	17,460,281	26.2%	17,435,612	26.5%	130,000	0.7%
		07 교육행정일반	6,215,111	9.1%	6,461,614	9.7%	6,370,579	9.7%	△246,503	-3.8%
		08 수입대체경비	2,393,117	3.5%	2,393,117	3.6%	2,129,117	3.2%	0	0.0%
		09 보조금 및 지원금	5,789,820	8.4%	4,352,570	6.5%	4,335,490	6.6%	1,437,250	33.0%
		(국가지원금) 등 계정	41,637,210	60.7%	41,635,158	62.4%	41,420,277	63.1%	2,052	0.0%
		02 인적자원운용	19,632,398	28.6%	19,630,346	29.4%	19,596,746	29.8%	2,052	0.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2,144,501	3.1%	2,144,501	3.2%	2,144,501	3.3%	0	0.0%
		05 교육복지지원	4,073,000	5.9%	4,073,000	6.1%	4,073,000	6.2%	0	0.0%
		06 학교교육여건개선	13,457,830	19.6%	13,457,830	20.2%	13,457,830	20.5%	0	0.0%
		07 교육행정일반	2,329,481	3.4%	2,329,481	3.5%	2,148,200	3.3%	0	0.0%
		(자체수입금) 등 계정	26,918,457	39.3%	25,124,407	37.6%	24,271,068	36.9%	1,794,050	7.1%
		02 인적자원운용	6,629,376	9.7%	6,630,376	9.9%	5,736,800	8.7%	△1,000	0.0%
		03 교육활동운영지원	1,774,328	2.6%	1,524,935	2.3%	1,734,235	2.6%	249,393	16.4%
		04 산학연활동지원	611,373	0.9%	611,373	0.9%	611,373	0.9%	0	0.0%
		05 교육복지지원	1,702,362	2.5%	1,477,452	2.2%	1,523,892	2.3%	224,910	15.2%
		06 학교교육여건개선	4,132,451	6.0%	4,002,451	6.0%	3,977,782	6.1%	130,000	3.2%
		07 교육행정일반	3,885,630	5.7%	4,132,133	6.2%	4,222,379	6.4%	△246,503	-6.0%
		08 수입대체경비	2,393,117	3.5%	2,393,117	3.6%	2,129,117	3.2%	0	0.0%
		09 보조금 및 지원금	5,789,820	8.4%	4,352,570	6.5%	4,335,490	6.6%	1,437,250	33.0%

사령	
[주간 임명] 김현정 교수(교양교직과정부장)	[정기자 승진] 박정윤(노인체육복지 22) 이선우(사회체육 23)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사	

2024학년도 수시 전형 경쟁률

6.17:1 → 6.54:1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

2019-2024 한국체대 수시전형 경쟁률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한국체대 경쟁률 추이다. 최근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4시, 2024학년도 수시 전형 신입생 원서접수가 모두 마감됐다. 총 지원자 수는 1,917명(총모집인원: 293명)으로, 지난해보다 214명 늘어났다.

총 8개 전형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6.5: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입상실적우수자(지난해 경쟁률 4.75:1) 전형이다. 지난해 242명에서 91명 증가해 333명이 지원했다. 총모집인원은 51명으로 동일하다.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경쟁률 역시 지원자 수가 늘었다. 570명이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668명이 지원하며 10.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모집인원은 62명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 중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8.3:1→13:1), 스

포츠산업학과(9.8:1→11.6:1), 운동건강관리학과(7.6:1→10.5:1), 노인체육복지학과(9.1:1→13.1:1)의 경쟁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세 번째로 체육특기자(단체) 전형이 2.3: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경쟁률(1.8:1)보다 상승했다.

또, 정시 전형에만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이 생겼다. 모집단위 학과는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특수체육교육과, 운동건강관리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가 있다. 학과별 모집인원은 1명으로, 해당 전형 총 모집인원은 5명이다. 올해 총 41명이 지원했으며 8.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물가 상승 반영한 시설이용료 인상’

관련 규정 일부 개정

10월 20일, 한국체육대학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기존에 징수하지 않았던 공공요금과 청소비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공공요금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전문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진행했다. 강의실 사용료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 23%(2010년 대비 2022년 누적 합계)를 반영했다. 즉, 일반대관 1시간 사용 시 이용료로 107,350원을 받았다면, 10월 20일 개정 이후는 196,210원을 받게 됐다. 훈련장 사용은 훈련학생처와 협의해 현행 단가에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운동장 1시간 사용료로 500,000원을 냈다면, 이젠 1,000,000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청소비 징수 ▲강의실 및 체육시설(실내 빙상장) 사용료 및 공공요금 단가 현실화(관리 담당 부서 및 현장 실무의견 반영) ▲제14조(시설이용료의 면제) 7호인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삭제 등이 있다.

총무과 조경연 주무관은 이번 개정에 대해 “전문 체육시설을 우리 학생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해 시설이용료를 인상했다.”라며 주변 시세를 살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관료에 준하는 금액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학교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석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기숙사 임시폐쇄 그 이후 닫힌 기숙사, 뚜껑 열린 학생들

학교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기숙사 내부 가스 공사를 이유로 기숙사 임시 폐쇄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기숙사 내부에 있는 학생들 집까지 밖으로 내놓으라는 공지를 남겼다. 이에 체육학과 학생회는 기숙사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505개의 응답을 얻었다. 응답 결과, 기숙사 생활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70.3%가 ‘불만족’에 투표를 남겼다. 기숙사 임시 폐쇄에 동의하냐는 질문에서도 83.2%가 ‘비동의’에 응답했다. 이에 체육학과 학생회(회장 박건우)는 설문을 토대로 생활관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박건우 학생회장(체육 20)은 “생활관장님으로부터 ‘기숙사 내에 짐은 두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의 거처 및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체육학과 학생회가 다시 나섰다. 학우들이 수강하는 과목을 조사하여 각 교수에게 비대면 수업 전환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수업은 사상상 대면 수업이 불가피하여 그대로 진행했으나 몇몇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A 학우는 “일부 수업은 비대면으로 전환돼 화상으로 수업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B 학우는 수강 중인 수업이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돼 본가에서 지냈다고 전했다.

학생회와 학우들의 노력으로 학교 측이 간과한 일부 사항은 해결됐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거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 학우는 “다른 학우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방을 잡아 일주일간 생활했다. 식사나 빨래와 같은 부분은 배달이나 세탁방을 통해 해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A, B 학우 모두 지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내부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학교 측의 답변 이후 학생회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폐쇄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도 있으나, 뒤늦은 공지와 공사 시기가 아쉽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설문에서 학우들은 “시설 공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식으로 전달하는 부분이 아쉽다.”, “일찍 공지해 줬더라면 일찍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등의 답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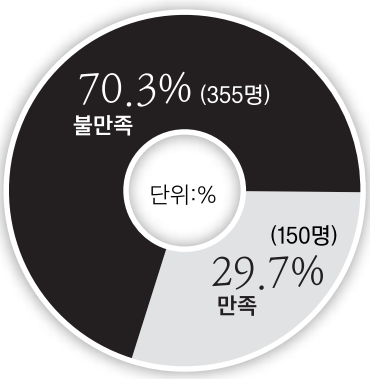
제영오 학우(체육 22)는 “본인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학우들 모두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체대생이라는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한다.”라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영선 생활관장을 만나 취재를 요청하고자 했다. 그러나 인터뷰 거절로 인해 이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전반적인 기숙사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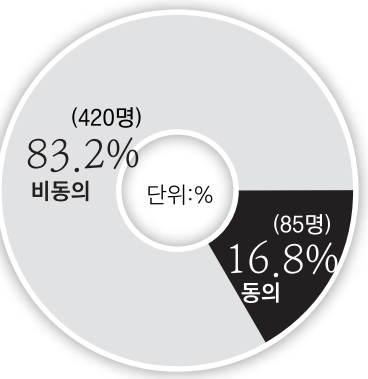
응답 505개



설문조사(10월 4~5일)에 참여한 학우 중 불과 150명이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기숙사 임시 폐쇄여부에 420명이 비동의했다.

전국체전기간동안 기숙사 폐쇄에 동의하십니까?

응답 505개



메타버스 도서관, 붕 떠 있는 지하 방치된 식당과 카페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은 3월 17일 개관식을 열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하 1층 식당과 카페가 들어오기로 한 공간이 방치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부서에 자문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각기 다른 내용뿐이었다.

기획처(공간조정위원회 담당) ‘운영되지 않는 사유는 알 수 없다.’

공간 운영 담당을 알기 위해 공간조정위원회(이하 ‘공조위’)를 주최하는 부서인 기획처를 찾아갔다. 기획처 마봉수 팀장은 지하 1층 빈 공간에 대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획처는 공조위를 개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부서에 장소 운영에 대한 담당을 정해줄 뿐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다.”라고 전했다. 기획처 김태영 주무관은 메타버스 도서관 배정 사항에 대해 “2020년 9월 도서관 신축 당시 공간 배정 TF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예산 사항은 맡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 배정은 ‘시설 공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배정하게 돼 있다. 공간 배정을 심의할 때는 ▲담당하는 관련 부서 ▲공간의 목적 ▲필요성 등의 타당성을 근거로 심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지하에 운영되지 않는 식당과 카페에 대해서 입시학생처와 생활협동조합 담당이라고 전했다.

생활협동조합 ‘예산이 추정됐을 때 기획할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담당자는 이에 대해 “이전 담당자가 이직한 상황이다. 예산이 추정돼야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현재 운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개설 예정일이나 구체적인 사용 방안 등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식당은 행복기숙사(2026년 준공 예정)가 설립되면서 들어오는 학생들(타 대학 포함)을 위해 기획한 공간으로 알고 있다. 행복기숙사가 준공된 후에는 반드시 식당을 열 예정



신축 도서관 지하 1층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출입금지가 표시돼 있다.

사진 : 송차호 수습기자

이나 그사이 개설일은 확실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입시학생처 ‘예산 요구 신청을 안 했던 것은 아니다.’

입시학생처를 찾았을 때는 생활협동조합과 비슷한 입장이었다. (현 담당자) 차희선 주무관은 “올해 5월부터 (입시학생처가) 생활협동조합 업무를 맡게 됐다. 원래 담당자는 휴직해 대신 업무를 맡았다.”라고 말했다. 예산 문제에 대해 그는 “현재 입시학생처가 예산 요구 담당이 맞고,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운영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생활협동조합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재무팀 ‘예산 요구 신청한 것이 맞다. 다만, 교육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

예산 신청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재무팀을 찾았다. 재무팀 이승원 팀장은 “연초에

예산 요구 계획서를 확인해 본 결과, 입시학생팀이 4월에 예산 신청을 했다. 이를 받아 재무팀이 교육부에 메타버스 도서관 지하 1층의 식당 및 카페 예산을 1순위로 신청했다. 그러나 8월 중에 교육부로부터 미반영한다는 공고를 전달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24학년도 예산 계획서에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신청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3학년도 계획서에 따르면 24년 8월에 식당과 카페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신청을 통해 예산 요구가 반영된다면 25년도 중에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전 담당자들의 이직, 자리 비움 등의 상황으로 인해 각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지하 1층 공간에 대한 계획은 마비돼 있다.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기획했던 시설은 예산 미반영으로 언제 개설될지 그 누구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놓였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천마 축제 청사진 : 동화와 놀이동산 아티스트 섭외 완료, 11월 초 공개 예정

11월 7~8일, 2023년 천마 축제가 한국체육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 천마 축제는 작년 ‘헬러윈’에 이어 ‘동화와 놀이동산’ 콘셉트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천마 축제를 주최하는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은 “지난 6월부터 축제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와 총학생회 집행부원들이 준비하고 있다.”라며 학우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한국체대 제휴 업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 특히 ‘밝은는 안과’와 ‘국민은행’에서 발전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류큐 브랜드 ‘FCMM’이나 음료 브랜드 ‘몬스터’ 협찬도 예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천마 축제는 유명 가수들의 무대로 많은 학우에게 호평받은 바 있다. 지난해 천마 축제는 유명 가수 초청으로 많은 학우에게 호평받은 바 있다. 10월 16일 이번 축제 연예인 섭외를 묻기 위해 김태훈 전 축준위원장(운동건강관리 20, 10월 25일부로 사퇴)을 만났다. 그는 “현재 모든 아티스트 섭외를 완료했고, 무대 순서와 구성까지 모두 정했다.”라며 “명단 공개 등 구체적인 정보는 축제 전주(11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천마 축제는 작년 축제와 다르게 학과 무대가 사라졌다. 김전 위원장은 “작년 축제는 같은 과 학우끼리만 무대를 구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쇼미더 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유로운 팀 구성으로 공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축제 주제에 맞게 감성 교복 대이나 포토 존을 설치했다. 프리마켓과 푸드트럭 개수도 늘렸다.”라며 학우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쇼미더 폼’ 무대와 함께 동아리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내 댄스 동아리 지상만무 김상민 회장(스포츠산업 22)은 “많은 학우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화제성을 가진 곡 위주로 선곡했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작년 천마 축제 공연 도중 셀카봉을 들거나 목마를 타는 등 무대를 가리는 행위로 불평을 겪은 학우들이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관객이 앞만 바라보는 구조가 아닌 T자 모양 돌출형 무대를 준비했다. 학우들이 더 가까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통제 또한 수월할 것이다.”라며 대안을 설명했다. 또한 작년 축제 때 발생했던 쓰레기 방지 문제에 대해 “취식존 및 푸드트럭 근처 쓰레기통 개수를 늘리고, 더 많은 관리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축제 봉사단 지원자 흥연진 학우(운동건강관리 22)는 “우리가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가 끝나고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우리 학교라는 점에서 시설물을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공결에 대해 임 회장은 “출결은 교수님들의 권한이다. 교수님들, 학교와 논의해야 한다.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계획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투표율 50% 이상이 목표”, 제2대 선관위 출범 사전투표 23일, 본투표 28일, 29일

1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선거 일정 및 재임자 사퇴 요청 공고
10.25	예비후보자 보직 사퇴 공고
10.30~11.03	총학생회장단 선거 공고 및 신청
11.04~11.13	총학생회장단 후보 선거 안내
11.14~11.27	선거유세 기간(약 10일)
11.20	1차 공청회
11.23(목)	예비투표 10:00~14:00
11.28(화)~11.29(수)	선거 10:00~18:00
11.29	개표 및 당선 공고

11월 28일부터 29일,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치러질 2024년도 총학생회장단 전체 선거 일정이다.

10월 7일, 2024학년도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 선거를 진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출범했다. 선관위는 총학 선거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이번 선관위를 이끌어갈 학우는 정원기 선관위원장(운동건강관리 19, 학생회장)이다. 각 학과에서 추천받은 학우들을 합해 총 11명이 선관위를 운영한다. 올해 총학 사전투표는 11월 23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본투표는 11월 28일, 29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다만, 교내 사정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

총학 선거 공고는 10월 30일에 발표된다. 이후 11월 3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끝나면 4일부터 13일까지 총학 후보 선거 안내 기간이 있다. 그 후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동안 선거 유세 기간이 계속된다. 그 사이 각 후보 공약 검증을 위한 공청회가 20일에 열린다. 투표가 끝나는 29일, 개표 후 당선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다.

올해 선거 일정은 작년보다 전체적인 기간이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선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보다 짧게 선거 일정을 잡았다.”라며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충분하다. 학생들 관심이 쏠렸을 때 투표를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기간을 줄이게 된 이유를 설

명했다. 작년의 경우 선거 유세가 하루 진행되는 대신 공청회가 두 차례 있었다. 올해는 선거 유세 10일 중간에 공청회를 하루 진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현적인 방안이지만 빠른 선거 일정 진행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가 목표하는 투표율은 50% 이상이다. “작년 투표율은 45.44%다. 이번에는 전체 학생 반 이상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작년 1대 선관위가 처음 출범해 기반을 잘 닦아주었다. 이를 토대로 좀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 업무 등 올해 일어난 사건들을 언급하며 “총학은 학생과 학교 사이를 이어주는 소통 창구와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총학보다는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학우가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조직이 총학임을 알아야 한다”라며 “그 시발점이 선거다.”라고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끝으로 “총학 행보 등 여러 활동에 관심을 표했으면 좋겠다. 지지가 아니어도 좋다.”라며 “학생들의 관심으로 학교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한국체대 취업박람회, 사회 진출의 이정표 되다

학생들 “취업 지원 행사 생겨 기뻐”



비가 오는 날씨에도 학생들이 취업 정보를 얻기 위해 취업박람회 현장에 방문했다. 오른쪽 사진은 동아오츠카 남기훈 동문(사회체육 12)이 학생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체대 취업박람회가 10월 19일 대운동장에서 진행됐다.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했다. ‘대한체육회’, ‘인천UTD’ 등 체육 산업은 물론, ‘데상트’, ‘GS리테일’ 등 다양한 계열 기업이 자리했다. 프로그램은 취업, 직무 두 가지로 나누어 참가자 수준에 맞게 준비됐다. 추가로 ‘국립대학육성사업 심리지원프로그램’, ‘퍼스널컬러 컨설팅’ 등 홍보와 이벤트 부스로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직무 존은 ‘GS리테일’, ‘데상트’와 함께 ‘메가스터디교육’, ‘㈜보령’, ‘티웨이항공’ 총 다섯 기업이 참가했다. ‘메가스터디교육’ 정희주 멘토(고등 E러닝 콘텐츠기획 담당)는 “체육대학 학생들이 메가스터디교육에 관심을 가질까 의문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만나보니 기획 업무 등 관련 직무에 관심을 가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멘토 ‘스포츠잡알리오’ 김선홍 대표는 “졸업한 선배들이 여러 기업에 취직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한국체대 학생이 모르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동기부여를 얻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했다.

취업 존에는 ‘대한체육회’, ‘인천UTD’

를 포함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넥센’, ‘동아오츠카’, ‘셀라바웃’, ‘MG새마을금고’, ‘스포츠잡알리오’ 총 아홉 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스포츠잡알리오’를 제외한 여덟 개의 기업은 모두 한국체대를 졸업해 해당 기업에 입사한 ‘동문 멘토’가 활약했다. 동문 모두 입을 모아 “후배들이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고, 이에 일조할 수 있어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넥센 임성훈 동문(사회체육 14)은 “한국체대 학우들이 체육 전공이다 보니 체육 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박람회가 취업을 앞둔 사람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된 것 같다.”라며 이점을 설명했다.

학생들 반응도 뜨거웠다. 행사 중후반인 오후 3시경, 참여자 660명을 돌파하며 취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의를 볼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기대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김나혜 학우(사회체육 20)와 백서린 학우(사회체육 21)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고 간다.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전제적인 취업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명을 듣게 돼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방문한 문원재 총장은 “우리 대학 졸업생이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번 취업박람회에 직접 참여해 후배들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 이런 박람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에는 육성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해 더욱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돕겠으며 아울러 입시박람회 또한 개최하여 우리 대학을 더욱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장에서는 한국체대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 타 대학 학생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신도현(22살, 부산외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학과 재학)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아는 형을 통해 이 행사를 알았다.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인천UTD’가 참석한다고 해 오게 됐다.”라고 동기를 밝혔다. 이어 “다른 취업박람회에서는 스포츠 프로구단을 쉽게 만나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체대에서 현직자를 만나 필요 역량 등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며 기쁨을 전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한국체대 개교 이래 처음 학교 주최로 개최됐다. 행사 기획 및 총괄을 맡은 인재개발원 이현미 주무관은 “두 달 정도의 짧은 기간에 준비하느라 힘들었

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멘토로 와준 졸업생 동문들과 학생들이 취업박람회에 반가움과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줬다. 특히, 학생들이 이렇게 성원해 줄 줄 몰랐다.”라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이 주무관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필요성과 인재개발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취업박람회가 부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진로 설계부터 정보 및 경험 제공, 인턴 등의 취업 활동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주최로 열린 ‘첫’ 취업박람회는 앞으로 있을 진로 및 취업 연계의 ‘첫걸음’을 의미했다.

멘토들에게 한국체대 학생들의 취업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도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정호 동문(스포츠청소년지도 16)은 “미리 준비해서 당장 지원해도 될 정도의 스펙을 이미 갖춘 사람이 있지만, 찾기 쉬운 채용 정보조차 알지 못하고 막연한 사람도 있다. 후자는 검색하고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나한국 동문(운동건강관리 13)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대학에 비하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보 접근 어려움을 언급했다.

한국체대 학생의 더 나은 취업 준비를 위해 이 주무관은 저학년의 진로 탐색 강의 개설도 추진하고 싶다고 비전을 전했다. 이 주무관은 “학과마다 진로 측정학 강의를 개설해 저학년부터 진로 수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학칙 개정, 관련 자료 제작, 교수회 발표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긴 공백기 후 진행된 탓에 아쉬움도 존재했다.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보완점으로 ‘부스 개수 부족’을 언급했다. 더불어 강유진 학우(사회체육 21)는 “학생들이 어떤 기업을 좋아하는지 사전 설문조사나 정보를 받았다면 참여가 더 많았을 것이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추가로 긴 대기 시간, 멘토의 임의적인 점심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다림 발생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멘토들도 개선점을 언급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지원의 동문(사회체육 11)은 “추운 날씨에 대비해 실내 진행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고 개선점을 언급했고, ‘동아오츠카’ 남기훈 동문(사회체육 12)은 “사전 홍보나 준비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도 얻어 심층적인 상담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주무관은 개선된 다음 취업박람회를 약속했다. “아쉬움을 반영해 부스 개수와 다양성도 늘릴 생각이다.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졸업생 관계망을 더 구축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멘토가 참여해 주실 것 같다.” 이어 “사전 준비도 더 철저히 할 생각이다. 미리 공지해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도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학생들이 ‘이 선배님은 꼭 만나고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며 변화를 예고했다.

박소영 부장기자 qkrthdud0330@naver.com

E-Class 마비, 정전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

10월 21~22일 우리 학교 E-Class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 이유는 전기 증설 공사로 인한 정전이었다.

10월 5일 학술정보원은 공사로 인해 정전이 있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후 교직원들에게 10월 20일 문자로 정전의 범위와 사유, 준비 사항 등을 미리 알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추가 공지가 없었다. 전기팀 최승호 주무관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중, 전기 용량이 부족해 증설작업을 위해 토요일 1일 정전을 진행했다.”라며 공사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요일 학술정보원(E-Class, 통합정보

시스템 담당) 정전의 경우,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추가 공지는 왜 없었냐는 질문에 “교무처와 학생팀에 공지해 해당 부서에서 학생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확인을 위해 교무처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고, 학생팀의 경우 학생에게 연락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국 학생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 주말 제출 과제가 있었으나 시스템이 마비돼 제출하지 못한 학우도 있었다. 또,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에 E-Class 시스템에 접

속이 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했다는 학우들이 나타났다. 이하람 학우(스포츠청소년지도 21)는 “자료 확인 및 공부를 하려 했으나, E-Class가 마비됐다. 그래서 당황스럽고 학습에 불편함을 느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불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모든 정보시스템 정전으로 인해 통합정보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통합정보시스템이 접속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도 있었다.

백중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국립대학육성사업 홍보부스

“대면 흐름에 맞춰 활발한 참여를 위해” 개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메타버스 도서관 1층 입구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단과 교수학습개발센터가 홍보부스를 열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국가중심대학으로 선정돼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단은 서포터즈 학생을 필두로 홍보부스를 통해 교내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홍보와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단 문경림 담당자는 홍보부스 개최 계기를 “이번 홍보 사업은 대면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업’으로 ‘글로벌 챌린지’와 ‘학생 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이 뽑혔다. 또 냉난방기 교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이 가장 많았다.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교육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본관 3, 4층의 냉난방기를 교체한 사업으로 멀티어학실 TV 및 PC 교체, 체육 실기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진행됐다. 문 담당자는 “학생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처럼 직접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시설을 보수하는 간접적인 사업(교육혁신 인프라 구축)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2023 국립대학육성사업 서포터즈 1기 대

표 허성미 학우는 “홍보부스 운영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항상 준비했던 기념품이 소진될 만큼 참여가 많았다. SNS에 공유하는 참여 방식으로 체육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에게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지도가 높아져 만족스러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문 담당자는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또 축제 때 홍보부스를 다시 운영할 예정이니 큰 기대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교수학습개발센터도 학기 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학습 능력 향상 보충학습 프로그램 ‘기초학습능력강화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를 진행했다.

백정윤 기자 junung88@naver.com

‘한국체대X국민대X연세대X한양대’

2023 SI-ENERGY 학술 교류전 개최

경쟁 PT 1등, 3등 모두 한국체대

지난 7일 스포츠산업 학술 교류 운영진(SIU: sport industry universe)가 주최하는 스포츠산업 학술 교류전 ‘SI-ENERGY’가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치러진 행사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국민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참여했다.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장 김수잔 교수를 포함한 각 대학교수와 13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학술 교류전의 취지에 따라 네 학교 간 교류를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각자의 경쟁력을 확인했다.

학술 교류전 주제는 KBO의 구단 중 하나의 구단을 선정하고, 스카이라ider 기업이 유니폼을 후원한다는 가정하에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PLIS(이상윤, 오민지, 조정희, 최영준 학우)’가 우승을 차지했고, 2등과 3등엔 각각 국민대학교 ‘클로저’와 한국체육대학교 ‘인타미아예린(윤예린, 한광희, 정재혁, 김영준 학우)’이 이름을 올렸다.

1위를 차지한 PLIS 팀의 이상윤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9)는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행사 운영진과 교수님들 및 기업 관계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라며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증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1위를 차지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3등 팀 윤예린 학우(레저스포츠산업 20)는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마지막 학기에 뜻깊은 경험 할 수 있어 좋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시야

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내년에도 진행될 행사이니 모두 관심 두고 참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학술교류전은스포츠웨어브랜드 ‘SPYDER’와 에너지 드링크 ‘Monster Energy’,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식 브랜드 ‘모두의 단백질’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행사 기획 전반을 맡은 김민서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9)는 “대 학생들의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해주신 모든 기업 대표님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네 학교의 예산 상황이 모두 달라 후원 기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야 했던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도움에 감사사를 표했다.

주제를 직접 제시한 스카이라ider 김형석 마케팅 팀장은 “여섯 팀 모두 고생 많았다. 계속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보완, 공생하길 바란다.”라고 행사 소감을 밝혔다.

대회 운영 총괄을 맡았던 조용현 학우(레저스포츠산업 19)는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즐기는 모습에 매우 뿌듯했다”라며 “스포츠산업을 배우는 학생들끼리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산업학과 조승찬 학생회장(레저스포츠산업 19)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 학기 진행돼 학과의 상징적인 행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전했다.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백중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사라질 야구의 메카, 그동안 야구는 어디서?

40년 역사 잠실야구장, 역사의 뒤편길로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잠실야구장이 2025년 철거될 예정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은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 센터를 방문한 이후 기존 잠실야구장 철거 후 돐구장을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첨단 스포츠·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대와 달리 야구 팬의 반응은 차갑다.

백종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야구장 자리에 들어설 돐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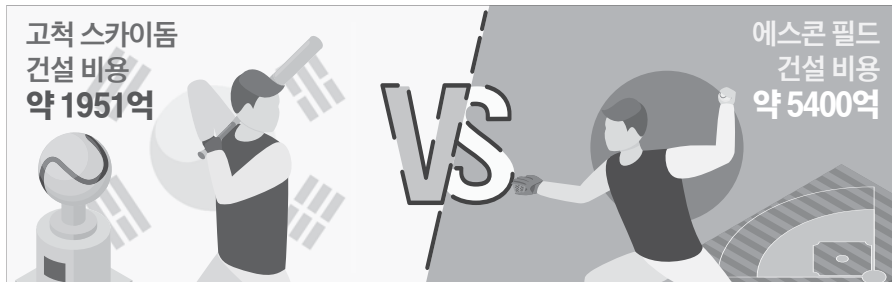
돐구장은 반구 형태의 지붕이 있는 대형 실내 경기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돐구장은 고척 스카이돐과 사이클 경기가 펼쳐지는 광명스피돐, 소싸움 경기장인 청도 소싸움 경기장 단 세 곳이다. 돐구장은 경기장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 시설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잠실야구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구장이다. 최대 2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1982년에 개장한 만큼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다음으로 제일 오래된 구장이다. 그만큼 시설도 노후했다.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전부터 서울시에 최신식 돐구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현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는 해설위원 시절부터 돐구장 건설에 찬성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정규시즌 144경기를 치른 후, 포스트시즌을 진행한다. 한해 우승자를 가르는 일명 ‘가을야구’가 펼쳐진다. 현재 KBO가 밝힌 포스트시즌 일정을 보면, 한국시리즈는 11월 중순에 펼쳐진다. 2023 정규시즌은 평균 3시간 12분의 경기 시간이 소요됐다. KBO가 한국시리즈 최종전으로 내세운 날짜는 11월 15일이다. 예년 11월 15일은 평균 8.1도다. 8.1도의 날씨에 경기를 진행한다면, 선수들은 물론 팬들의 안전도 위험하다. 좋은 환경에서 포스트시즌이 치러지기 위해서라도 돐구장은 필요하다.

개폐식 VS 폐쇄식, 엇갈리는 반응



2015년 완공된 고척 스카이돐(폐쇄식)은 1951억의 건설비용이 소모됐다. 일본에서 2023년 완공된 에스콘 필드(개폐식)는 5400억을 들여 건설됐다. 폐쇄식과 개폐식 돐구장 건설 비용이 약 3배 정도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일본 공사매거진 '시공의 신'

야구장은 당연히게도 잔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많은 야구인은 ‘야구장은 천연 잔디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조 잔디를 사용할 때, 수비와 주루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건설하는 돐구장은 고척 스카이돐과 동일하게 폐쇄식으로 지어진다. 폐쇄식으로 돐구장을 지을 경우, 햇빛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천연 잔디를 사용할 수 없다. 잠실야구장 현장 인터뷰에서 만난 키움 히어로즈 서포터는 “슬라이딩 시 생기는 마찰, 굳은 인조 잔디 때문에 다치는 선수

가 매우 많다. 그래서 이번에 지어지는 돐구장은 천연 잔디를 사용하는 개폐식이길 바란다.”라며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천연 잔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팬들의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폐쇄식 돐구장을 택했다. 김 교수는 “천연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잔디보다는 조성비와 유지관리비 등 돈이 가장 큰 문제다. 개폐식으로 구장을 건설하면 조성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또한, 유지관리비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며 폐쇄식 구장 건설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6년을 기다릴 야구팬의 목소리

돐구장 설치하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야구팬이 바랐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 발표 이후, 이들의 반응은 차갑다. 앞서 언급했듯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임시로 사용할 홈 경기장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LG 트윈스 박서정 학우(사회체육 20)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에서 응원할 때 기뻐하고 수줍음을 느낀 적이 있다. 그렇기에 나를 비롯한 많은 LG 팬에게 잠실야구장은 단순히 야구장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라며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며 느낀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6년간 대안으로 제시된 목동 야구장을 사용하면 어떤 거 같냐는 질문에 “잠실야구장이 갖는 상징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위험하지만 가능하다면 잠실 주경기장을 개조해 경기를 진행하면 좋겠다.”라며 뜻을 밝혔다. 목동 야구장은 2015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 넥센 히어로즈가 사용하던 곳이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야간 경기가 불가하다. 수용인원 역시 16,000명으로 25,000명에 달하는 잠실야구장에 비해 부족하다.

두산 베어스 팬도 같은 의견이다. 박주원

학우(스포츠산업 22) 역시 “목동 야구장은 아마추어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다. 경기장에서 먹거리와 응원 문화를 즐기기에 부족할 것 같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렇다면 다른 수도권 연고 구단인 수원과 인천에서 경기가 치러진다면 경기장에 갈 길에 관해 묻자, “구장을 빌려 홈 경기를 한다면, 홈 경기의 이점을 얻지 못할 거 같다. 다른 구단의 경기장을 빌려 홈구장처럼 사용한다면 굳이 경기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아예 연고가 없는 구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거 같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고척돐은 어떨까. 고척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야구 경기가 치러지는 돐구장으로 2015년에 개장했다. 키움 히어로즈가 사용하고 있는 고척돐은 목동과 마찬가지로 16,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최신식 시설을 구축한 경기장이다. 분명히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키움 히어로즈 서포터는 “고척돐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역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차장도 아주 작다. 팬이 많은 두산과 엘지가 고척돐을 사용한다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할 서울시



9월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안) 조감도다. 좌측 아래 반구 형태의 건물이 새로 지어질 돐구장이다.

야구 경기 이외에도 돐구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SSG 랜더스가 사용할 청라 돐 야구장이 그 예시다. 2028년에 개장할 청라 돐 야구장은 SSG 계열사의 기업의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와 야구장을 연계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이끌고자 한다. 서울시가 돐구장을 통해

얻을 경제적 효과도 전망이 밝다. 우리 대학에서 사회체육시설관리학을 강의하는 김미옥 교수는 “돐구장을 건설한다면 프로야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하고, 공연을 비롯한 여러 행사를 진행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며 이윤을 얻기에 용이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서울시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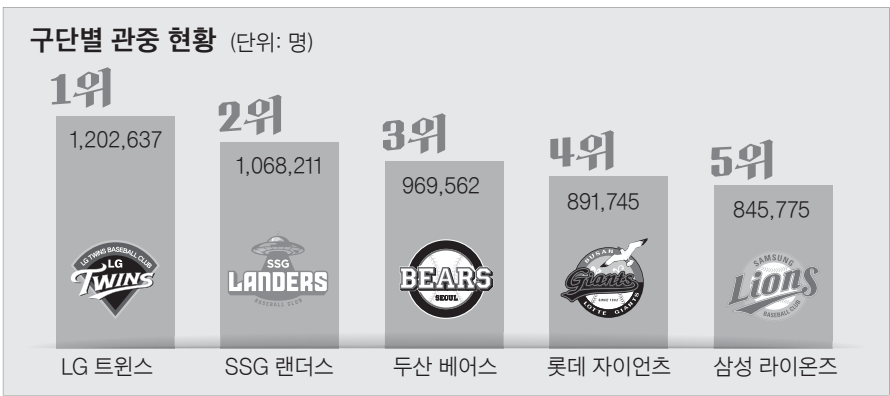
른 국제적인 도시들에 비해 문화 여가를 즐길 인프라가 미흡한 편이다. 이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건설하고자 하는 MICE 복합단지는 한강을 활용해 서울시 동남권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며 자세한 내막을 전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 유치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 KBO 커뮤니케이션팀 이경호 팀장은 “현재 고척 스카이돐이 국제대회 유치 기준에 맞는 구장이라 WBC와 같은 국제대회가 고척 스카이돐에서 열렸다. 만약 잠실에 돐구장이 생긴다면, 교통편이 비교적 좋기에 고척 스카이돐과 공동 개최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즉, 가까이 위치한 두 구장을 앞세워 국제대회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책 없는 성급한 발표

서울시는 9월 16일, 잠실 일대에 돐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 전시컨벤션 시설을 조성해 한강과 연계한 수변 생태문화 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완공된다면 지금 잠실야구장이 있는 위치에 폐쇄식 돐구장이 건립된다. 약 3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돐구장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장이 된다. 이는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에 호재다. 두 팀은 관중 동원 최상위에 위치하는 구단이기 때문이다. LG 트윈스의 경우, 2023시즌 120만 관중을 동원하며 10개 구단 중 1위를 달성했고, 두산 베어스는 96만 관중을 동원하며 3위를 기록했다. 그렇기에 공사가 끝날 2031년 이후, 양 팀의 팬들이 가득 메울 경기장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잠실야구장을 철거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양 팀이 5년간 사용할 경기장을 아직 찾지 못했다. 처음에 대안으로 제시된 잠실 주경기장을 개조해 야구장으로 사용



2023 시즌, 정규 리그 관중 입장 현황이다. 120만명을 동원해 1위를 기록한 LG 트윈스와 96만 명을 동원해 3위를 기록한 두산 베어스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KBO

하는 방식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잠실야구장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잠실 주경기장 일대를 공사하는 것이기에 주경기장을 개조해 144경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말했다.

또한, “20,000여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잠실 주경기장 일대 공사로 인해 많은 출입구가 통제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다.”라며 안전상의 우려를 표했다.

대안에 관한 여러 시각



지난 10월 14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중, 3루 관중석을 가득 메운 두산 베어스 팬들의 모습이다.

돐구장 건설을 발표한지 여러 날이 지났으나 아직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공사의 시작까지 많이 남긴 했지만,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팬

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현재까지 나온 대안 중 가장 팬들이 바라는 것은 잠실 주경기장을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김교수가 언급했듯, 안전상 기각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래도 이 팀장은 “잠실 주경기장 개조 대책이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니다.

서울시, KBO, 두산, LG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안을 계속 모색 중이다.”라며 현재 상황을 말했다. 그리고 “팬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귀담아들을 예정이다. KBO는 어떻게 하면 팬들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실야구장의 빈 자리를 느끼지 않으며 야구를 즐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중이다. 또한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며 KBO의 노력을 전했다.

10월 14일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만난 10여 명의 의견을 물었다. 그들 모두 돐구장 건설을 응원했다. 이들은 “비를 비롯한 날씨 문제로 경기가 많이 미뤄져 아직도 정규시즌 경기를 하고 있다. 잠실에 돐구장을 짓는다면 지연 경기가 줄어 정규시즌이 일찍 끝날 것이다.”라며 돐구장의 건설을 반겼다. 그러나 서울시의 발표 및 대처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팬들은 “대안 없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잠실 주경기장을 개조해 6년간 사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빠르게 대책을 내세워야지, 협의체만 구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극장 대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희열의 순간을 묻다

항저우에 태국기가 번듯이 게양되고 애국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한국체대 학우들의 노력과 맘이 빛나는 활약이 돼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했는지, 우리대학 우리선수에게 희열의 순간을 직접 물어봤다.

박정윤 기자 junung88@naver.com

Hangzhou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의 중심에 꽃길 금빛 화살 - 체육학과 22학번 양궁 임시현

Q. 먼저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37년 만에 3관왕을 이루셨는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A.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경기 중 동료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았고 노력한 만큼 기량이 나왔습니다. 혼성, 단체전, 개인전 모두 금메달을 따게 돼 영광입니다.

Q. 타 대학교와 실업팀에서 제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체육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입학 전에 김진호 교수님께서 실적이 없는 저를 잘 챙겨주셨던 것을 보답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고 한국체육대학교라는 이름 자체도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또 실업팀에서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기보다 학교 생활을 좀 즐기고 싶어서 한국체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Q. 사실 국가대표가 되면 한국체대 캠퍼스보다 선수촌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학교와 선수촌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시나요?

A. 선수촌에서 통학 셔틀버스가 아침 7시 2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새벽 운동은 빠지고 학교에 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듣고 점심에 다시 선수촌에 복귀해서 오후 운동 또는 개인 운동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선택한 목표 이유 중 하나가 동기들과 대학 생활을 즐겨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

제나 시험이 힘든 건 하지만 대학 생활과 대표팀 훈련을 함께하며 더 즐겁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Q. 원래대로 지난해 아시안게임이 진행됐다면 출전이 불가능했으나 연기로 인해 다시 선발전을 치러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발전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더 신경 쓰셨나요?

A. 선발전 당시 '몇 등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선발전을 치르고 싶었습니다. 제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발전에서 1등을 하게 됐고 어렵게 잡은 기화된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Q. 여러 국제대회도 경험해 봤지만,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A.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학교에 오느라 오전 시간을 훈련에 투자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보통 하루에 300~500발 정도 발수량을 채우는데 이 훈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후와 야간에 추가로 더 훈련해서 감을 찾으려 노력

했습니다.

Q. 아시안게임 경기 도중 가장 위기였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개인전 준결승 마지막 세트가 기억에 납니다. 중국의 리자란 선수가 10점을 쏜 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경기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9점을 쏜 게 마지막 샷오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으니 실수하지 말고 꼭 기회를 잡자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좋은 결과 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결승 경기에 섰을 때 긴장 상태에서 과연 준비했던 자세들이 나오지 확인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긴장 상태에서 수행 능력이 돼서 확실히 세웠고 더 도전하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Q. 임시현 선수는 혼성, 여자 단체, 개인전 세 종목에 출전하셨습니다. 혼성과 여자 단체는 개인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그리고 여러 종목을 경험하면서 배운 교훈이 나느낌들이 궁금합니다.

A. 확실히 함께 협력한 혼성전과 단체전이 기억에 납니다. 특히 여자 단체전에서 언니들이 먼저 활을 쏘고 오조준 포인트를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3번째 주자로서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더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Q. 개인전 결승에서 '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와 맞붙으셨습니다. 두 분에게 상당히 친해보이셨는데 경기 전후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안산 선수와의 경기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경기 전에 주먹을 맞대면서 서로 "파티팅 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최선을



임시현 학우(체육22)가 양궁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후 3관왕 달성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다했고 끝내고 난 뒤엔 산이 언니가 저에게 3관왕 정말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Q. 시상식 가장 높은 곳에 세 번 올랐고, 세 번 모두 다른 세리모니를 보여주셨습니다. 세리모니와 관련한 일화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해 있던 건가요?

A. 사전에 준비는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여자 단체전 시상식 때는 까꿍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산이 언니(안산 선수)가 너무 부끄럽다고 해서 다른 포즈로 바꿨습니다.(웃음). 결국 채택된 세리모니는 걸그룹 트세라핌의 김재원님이 콘서트에서 "너 내 동료가 되라"라는 멘트를 귀엽게 실수해서 파진 영상을 패러디하는 것으로 모두 찬성하여 결정했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고 미소지으며 세리모니를 했습니다. 개인전 시상식 때는 제가 손가락을 세 게 펼쳐 3관왕임을 세리모니 했습니다. 사실 할까 고민했는데, 내가 또 언제 삼관왕을 해보겠나 싶어서 자랑하듯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Q. 아시안게임 종료 후 프로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A. 미국 무대가 저의 최종 목표여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 제가 미국 PGA(미국프로골프)투어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나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선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주저 없이 미국으로 도전하겠습니다.

Q.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체대 학우인 임성재, 장유빈 학우와 많은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로 했나요?

A.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같이 경기도 뛰고 방을 쓰면서도 계속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임성재 선배님과 장유빈 학우와 장난도 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없지 않았고 시간이 했습니다. 특히 PGA를 경험해 본 프로 선수에게 미국 생활의 고충이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 조우영'에게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저에게 그 기간들이 개인적

출처: 뉴스1

Q. 동메달을 딴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저 자신은 큰 차이가 없지만, 메달을 획득한 후 시선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인기 종목이라 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아예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 지인들에게 축하도 많이 받았습

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프로필과 기사가 뜨는 것과 달라진 식탁이 변화로 느껴졌습니다(웃음).

Q. 스피드는 종목 채택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압니다. 자부심을 느끼나요?

A. 첫 메달이다 보니 자부심이 느껴지는 합니다. 하지만 자부심보다는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 좋은 발돋움이라고 생각됩니다.

Q.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마지막 한마디와 작오 부탁드립니다.

A. 11월에는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또다시 언니들과 호흡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 티켓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파리 올림픽 쿼터에서 좋은 결과 내어 파리 올림픽으로 향하는 게 현재의 목표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Q. 항저우 적응기가 궁금합니다. A. 아시안게임 2주 전에 중국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에 출전하고 한국에서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항저우로 왔습니다. 중국에 계속 있던 느낌이라 적응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향신료에 민감한 편이라 출국 전에 미리 음

Hangzhou



조서현 학우(두번째 줄 우측 세번째, 경기지도 23)가 은메달을 획득한 후 동료들과 웃으며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Q.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선발전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아시안게임인데 은메달을 따게 돼 영광입니다. 같이 호흡 맞추고 경기한 선수들과 함께해 더욱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하게 돼 감사했습니다.

Q. 항저우 적응기가 궁금합니다.

A. 세팍타크로 경기장이 다른 경기장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수촌이 아닌 다른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호텔에서 식

식을 챙겼기 때문에 따로 힘든 점도 없었습니다. 선수촌 시설도 웬만한 호텔과 맞먹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직원분들이랑 뱃지 교환도 하며 선수촌에서 잘 지냈습니다.

Q. 집중력과 순간적인 힘이 두 요소 모두 중요한 스포츠 클라이밍은 전날 어떤 루틴으로 대회를 준비하나요?

A. 온전히 쉬는 편입니다. 거의 이틀씩 잡고 휴식에 몰두하는 편입니다. 전날에는 유산소도 하지 않고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만 하는 편이고 문제 될 만한 행동 같은 것도 지양합니다. 루틴이라고 한다면 암벽화를 항상 닦는 일과가 있습니다.

Q. 지난 인터뷰(275호 6-7면)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준비했던 것만큼 잘 풀렸는지, 또 위기의 순간이 있었나요?

A. 계획한 것처럼 잘 풀렸는데 저는 조금 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잘 풀려가는 분위기 좋아서 이번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연습했을 때 최고 기록이 16.9초가 나왔는데 인도네시아와의 준결승에서 0.3초를 단축한 16.7초대가 나왔습니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한 것은 기쁘지만 패배의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Q. 스피드 경기 전 암벽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고 준비했나요?

A. 경기 전에 암벽의 루트를 파악하는 것을 '루트 파인딩'라고 합니다. 사실 스피드 종목의 경우 암벽 위치가 공식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에 확인하고 손과 발의 동작을 되짚어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단거리 육상 선수가 완전히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에 발을 댄지 않는 것처럼 스피드 클라이밍도 암벽을 오를 때마다 잡고



정윤준 학우(가운데, 경기지도 23)가 남자 스피드 릴레이 사상에서 동메달을 걸고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출처: 대한산악연맹

해 한국에서 평소 먹던 음식들로 챙겨갔습니다.

Q. 이번 아시안게임 때 첫 번째 주자였던 데 부담감은 없었나요?

A. 제가 스타트 반을 속도다 빨라서 첫 번째 주자로 출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부담감을 느끼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춘 형들이 출전했던 저번 2018 자코르타 아시안게임 때 첫 번째 주자의 실수로 예선 탈락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도 혹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웃음) 그래도 준비한 것이 있으니 자신감 있게 등반해 극복했습니다.

Q. 3, 4위전 경기가 끝난 후 당시 상황이 궁금합니다.

A. 메달을 땀을 때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메달 획득이 어려울 뻔한 상황이었고도 했고 모두가 부상 없이 잘 마쳤기 때문에 고생했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면서 형들과 마주 보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경기 후에는 도핑검사와 인터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SNS에 저를 태그했다는 알림이 100개가 넘어서 깜

짝 놀랐습니다.

Q. 동료들과의 호흡은 어땠나요?

A. 같이 호흡을 맞춘 형들은 아시안게임 출전 경험이 있기도 하고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 의지가 됐습니다. 승법이 형이 특히 중앙에서 지휘자 느낌으로 심리적인 컨트롤을 해줬습니다. 3, 4위전에서도 제가 조금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진정시켜 줘서 감사했습니다.

Q.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 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가능성은 어떤가요?

A. 아시안게임 출전 전부터 몸 상태가 좋습니다. 앞으로 4.6초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4.9초이지만 스포츠 클라이밍이 신생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메달까지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도 기회가 된다면 출전이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Hangzhou

더 넓은 무대로 나이스 샷 - 체육학과 20학번 골프 조우영



조우영 학우(체육, 체육 20)와 장유빈 학우(체육, 체육 21)가 단체전에서 우승해 획득한 금메달을 꺼내고 있다. 출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Q.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발됐을 때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A. 선발전에서 치열한 경기 끝에 선발됐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할 경우 병역을 해결한다는 점도 있지만, 국가대표로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여서 당시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1년이 연기됐습니다. 다시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것 같았고 상실감이 컸습니다. 당시 '던 어니 될 것이다', '재선발 가능성이 있다' 등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프로를 준비하고 있어 그 소문을 듣고

Q. 그렇다면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A. 무엇보다 체력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기초 체력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유명하신 김시우 프로, 임재석 선배, 장유빈 후배와 함께하는 단체전에서 좋은 호흡을

보이기 위해 서로 많이 대화하고 작전을 짜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고인 끝에 목표에 정했기에 간절함이 컸습니다.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훈련했던 것이 금메달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항저우에서 적응기가 궁금합니다. 선수촌 식사는 입에 맞았나요?

A. 항저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수습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환경이라 적응하는 데 예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이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장소다 보니 한국 선수들에게 딱 맞는 식사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향에 민감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식사하면 쉽게 체하는 체질이라 적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한 밀키트와 도시락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Q. 첫 아시안게임 출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목표를 이뤄 만족스러우신가요?

A.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솔직히 허무한 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준비하던 물기도 했던 대회가 사실 만에(골프 경기) 끝나버리니 허무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중이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실수를 했던 것이 스스로

실망스러웠습니다.

Q. 아시안게임 종료 후 프로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대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A. 미국 무대가 저의 최종 목표여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를 통해 제가 미국 PGA(미국프로골프)투어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나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선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주저 없이 미국으로 도전하겠습니다.

Q.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한국체대 학우인 임성재, 장유빈 학우와 많은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로 했나요?

A.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같이 경기도 뛰고 방을 쓰면서도 계속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임성재 선배님과 장유빈 학우와 장난도 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없지 않았고 시간이 했습니다. 특히 PGA를 경험해 본 프로 선수에게 미국 생활의 고충이나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프로 조우영'에게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저에게 그 기간들이 개인적

출처: 뉴스1

다음 목표를 향해 더 높이 세팍!(말레이시아 어로 '차다') - 경기지도학과 23학번 세팍타크로 조서현

제 경기력에 집중하지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선발됐습니다. 처음엔 실감이 안 납니다. 하지만, 6월쯤 처음 합숙을 시작하며 훈련했을 때 점점 실재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Q. 학교생활을 하며 하고 싶었던 로망이 있나요?

A. 로망이라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운동 일과가 많아서 따로 학교생활을 즐길 시간은 없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경기 일정과 이루고 싶은 현재의 목표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A. 11월에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 대회를 마지막으로 남게 두고 있습니다. 실력이 더 떨어지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아직까진 뚜렷한 목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Q. 아시안게임 은메달이 조서현 선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나요?

A. 세팍타크로라는 종목이 참가 선수수가 많다 보니 출전 기회가 한정적이었습니다. 경기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대신 이 감정을 동기부여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발돋움이라 믿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제가 팀의 수리에게 큰 공헌을 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세팍타크로의 매력은 무엇인지, 양

은). 기쁨의 뒤쫓기 같은 파티를 하며 함께 놀았던 일화들도 있습니다.

로 세팍타크로가 어떻게 대중화됐으면 하는 지 궁금합니다.

A. 티오프의 서비스, 킬라의 킥과 같은 세팍타크로만의 화려한 기술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다만, 동작이 화려한 만큼 공격 후 차지할 때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딩을 하다가 상대편과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동작이 크고 환호가 나올 법한 화려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나 축구처럼 세팍타크로도 대중화돼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조서현 선수를 응원해준 학우와 지인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응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을 좋은 결과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학령인구 감소와 위기,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우리 대학의 대비책은?

대학은 그대로지만 입학생은 점점 줄어든다. 이 한 문장이 우리나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령인구(만 15~17세)는 2020년 139만명에서 2030년 95만명으로 10년 새에 약 31.9%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봤을 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체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번 10월호에서는 한국체대의 현주소와 국내 유일 종합 체육 대학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강현석 기자 fcnx000@naver.com

대학가의 위기, 그에 맞춰 대응하는 교육부

연도	인구
2020	1,390
2029	1,353
2030	1,325
2031	1,293
2032	1,244
2033	1,150
2034	1,041
2035	946

통계청이 발표하고등학교 학령인구 추계자료다. 2032년부터 2035년까지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대비해 적정규모화 계획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불행 중 다행

2018~23년도 한국체대 신입생 지원자

년도	총모집인원	지원자 수	경쟁률
2018	613명	2,276명	3.71:1
2019	610명	2,022명	3.38:1
2020	597명	2,022명	3.39:1
2021	590명	2,494명	4.23:1
2022	605명	2,788명	4.61:1
2023	610명	2,914명	4.78:1

그렇다면 한국체대 모집인원, 지원자 추세는 어떻게? 신입생 모집인원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613명, 610명, 597명, 590명, 605명, 610명으로, 2023년 총모집인원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시작한 2022년을 기준으로 5명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지원자 수도 2,276명, 2,059명, 2,022명, 2,494명, 2,788명, 2,914명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개년 총 모집인원 및 지원자 자료를 확인했을 때 아직 학생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적정규모화 계획이 2025년까지 진행된다는 점과 학령인구 감소 관련 사안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수치’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원자가 감소해도 결국 입학 수요가 끊이지 않는 대학은 살아남을 것이다. 무엇이 수요를 뒷받침하는가?

체육대학의 이상과 현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A 체대입시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체육대학 입시 준비생들로, 대학에 지원하는 기준과 바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주된 답변은 학교 및 학과의 전망, 취업 관련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됐는지 등이었다. 더 나아가 “주변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체육대학은 졸업 후 트레이너, 체육 교사로만 진로가 국한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체육계의 전망과 대학의 진문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입시설명회 등에서 체육계의 밝은 전망을 어필해야 한다.”라며 추가적으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문체육 선수로서 입시를 준비하는 서울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도 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간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진행했으며 이들의 생각 역시 체육대학 입시 준비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체육 계열 직업 관련 체험의 장을 마련하거나 설명회를 열어, 체육계 전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등록금 및 기숙사 지원과 모집인원을 늘리거나 입학 조건을 낮추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과연 우리 대학은 수험생이 꿈꾸는 모습일까? 이번에는 한국체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지원 당시 생각한 한국체대의 비전과 현재 생각의 차이, 학령인구 감소 상황 속 한국체대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 입학 당시 기대했던 한국체대의 모습은 최고의 운동 환경, 교직 이수를 통해 은퇴 이후의 길도 설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국내 유일 체육 단과대학으로서 선수와 선배 및 교수와의 교류, 전공 수업의 전문성 등을 기대했다는 생활체육대학학우들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비전을 찾아본 학우는 드물었다. 훈련시설이 인기 종목에만 편중돼 있거나 경기 출전 시 출결 인정 횟수의 부족, 교직 기회의 축소 및 공지 지연 등의 응답이 있었다. 더불어 생활체육대학 학우들은 선수들과의 교류 부족, 교양 수업의 질과 다양성에 대한 실망, 부실한 학교 행정, 엘리트 체육 위주 학교라는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내 유일 종합 체육 대학으로서 자부심이 있으며 영향력 있는 체육인이 되리라 확신한다.”, “입학 전과 후 생각의 변화는 없다.”라는 답변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문제와 정답, 모두 우리에게 있다

최고로 잘하는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이라 그 선수들의 시험일정을 잘 고려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운동선수로서 학교의 든든한 지원과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선수 은퇴 후에도 나아갈 수 있는 길, 가장 중요한 교직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인기종목들만 훈련시설이 갖춰져 있고, 시험에 출전해야 할 상황임에도 출결 인정횟수가 1학기에 5번이라 부족해서 못 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직의 기회가 적어졌고 그 공지가 늦게 확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교직을 딸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1. 강의평가에 따른 수업의 질 향상

2. 최근 생긴 트랙제도와 같이 각 학과의 전문성 추구

3. 체육학과와 생활체육대학 학생들 간 교류 활성화

4.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같이 취업에 영향을 주는 활동 지원

▲ 한국체대 재학생 설문조사 주요 답변

‘국립대학으로서 경쟁력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

재학생들이 제시한 한국체대의 방향성에 대한 응답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선수들 또한 감소할 것이다.”, “좋은 인재들이 감소할 가능성도 예측해 국제대회 경쟁력 유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또한 체육계 내의 전문성 확대, 한국체대만의 특수성 제고, 강의평가에 따른 수업의 질 향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및 학과 확대, 전문 인재 배출 등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후 더 자세한 의견을 묻기 위해 인터뷰에 응해준 A 학우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 학우는 “입학 당시에는 엘리트 선수들과 생활체육대학 학생들 간 교류가 활발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양측의 장점이 있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

보니 오히려 양극화가 일어났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체육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신 교수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폭을 넓히고 보다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한 바와 너무 달랐다. 강의평가에 의견을 남겨도 수업 방식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열정 있거나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실무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수업 외 시간 학생들이 많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 또한 아쉬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학교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A 학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험생은 자신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다. 즉 입학 성적이 낮거나 유망하지 않은 학교(학과)부터 위기를 겪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입학 성적은 단순 성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사회가 바라보는 해당 학교의 수준과 가치가 포함된 점수다. 따라서 졸업생이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력, 즉 인재 배출이 관건이다. 이에 학교 측의 질 높은 수업은 물론 취업 관련 활동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한다.”라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어 “에브리타임(익명 게시판)에서 일어나는 논쟁, 학교 측의 통보식 결정 및 행정과 같은 대학 내부 사소한 문제들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자생각

앞으로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모든 대학이 위기를 마주했다. 또한 모두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리라 보장도 없다. 각 대학은 그들만의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체대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를 넘

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의료기술이 단순 기대수명만을 늘려주는 역할이라면, 그 질을 높여주는 것은 스포츠와 여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한국체대는 국내 유일 종합 체육 대학이다. 학생들의 목소리와 글로벌 체육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을 통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진로고민 상담소 : 세 살부터 여든까지, 건강을 책임지는 체육

유아체육 지도자&노인체육 지도자 편

우리 대학을 다니는 학우 중 유아체육이나 노인체육 관련 아르바이트 하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만큼 스포츠지도자는 ‘특정 세대’의 생활체육과 관련이 깊어졌다. 전문 실기 지도와 함께 유아, 노인의 체육을 담당하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갖춰야 할까? 유아체육과 노인체육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이종성 동문(좌측, 사회체육 14)이 아이들과 유아체육 프로그램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14학번 졸업생 이종성입니다. 교내 축구 동아리 라밤바를 하며 2년간 동거했던 체육학과 졸업생 친구 두 명과 함께 ‘리틀트리 키즈집 유아체육 학원’과 ‘노리밋 선수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 한국체대 선후배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Q. 유아체육 지도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유아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4살부터 초등학교 친구들까지 수업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신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가르칩니다.

Q. 유아체육이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유아체육의 전망은 어떤가요?

A.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자영업자에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며 대기업에서 유아체육 분야에 투자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문을 닫은 업장도 많고, 새로 생기는 업장도 적습니다. 현재 유아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는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영업체가 도리어 유리합니다.

Q. 원장님이 유아체육 분야를 선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솔직히 돈을 잘 벌고 싶은 마음이 컸습

니다. 그러나 ‘체대생 출신’으로 IT 계열사 취업이나 대기업 사무직을 놓고 경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체대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선수 트레이닝 센터를 친구들과 함께 창업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아체육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며 사업적으로 보완할 점을 찾았던 거 같습니다. 함께 창업한 친구들은 육상 종목을 전공해 전문적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하다가 유아체육 학원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Q. 한국체대 내에서 유아체육 분야로 진

출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A. 학교 내 유아체육 분야를 지원해 주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학교 이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지도자 관련 일을 찾았습니다.

Q. 유아체육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된다.’라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직접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주효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과 지도자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Q. 유아체육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궁금합니다!

A. 유아체육 지도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재미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하는 입장에서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항상 밝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Q.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경험이 현재 유아체육 지도자 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나요?

A. 스포츠 관련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여러 사람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영 강사의 경험도 있고 스피닝 지도 경험도 있습니다. 학부 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 한국체대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창업할

수 있는 자금도 모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Q. 유아체육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유아체육 학원이 있고, 인라인이나 축구, 줄넘기 등 종목별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매장을 차리지 않고 출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런 업체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백화점 문화센터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계약 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Q. 유아체육 지도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도 궁금합니다!

A. 사실 보통 유아체육 업체들은 워라밸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복지를 높이는 여러 방안을 생각합니다. 추후 우리 또래 지도자들, 운영자들이 더욱 많아지면 지도자들의 워라밸이 더욱 개선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라밸이 점차 좋아지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Q. 유아체육 지도자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체육은 수업이 늘다 보면 수입도 꽤 괜찮은 분야입니다. 유아체육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을 배우고 싶거나 열정이 있으시다면, 우리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17학번 이상원입니다. 현재 졸업 후 강남구 자곡동 더 시그널 하우스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선배님은 노인체육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입주예정자나 입주자분들의 건강 체크와 건강관리 및 PT, GX 프로그램(Group exercise program, 탁구, 당구, 산책, 등산, 스트레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노인체육 지도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A.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개개인 특성에 대한 인지와 그에 맞는 양질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미와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기획 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한국도 이제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노인 복지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노인체육의 전망은 어떨까요?

A. 베이비붐 세대와 그 이후 세대들이 고령층이 되기 시작해 노인체육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인구 중 21% 이상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Q. 선배님은 노인체육 분야를 왜 선택했나요?

A. 학창 시절부터 복지와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잘하는 체육과 복지를 같이 배울 수 있는 노인체육복지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전공 공부를 통해 노인체육 분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Q. 한국체대에서 노인체육 분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노인체육복지학과 학생의 경우, 학과 커리큘럼이나 사업, 프로그램 등을 착실히 따라가다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 학과 학생들이 노인체육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님이나 조교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학부 때 노인체육 관련 아르바이트로 업무 경험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학교 외 노인체육 관련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이 궁금합니다!

A. 아르바이트 경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학부 때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처럼 추후에 취업해 경험할 직무가 아니더라도 어르신과 함께 상호작용을 해보면 일이 본인과 맞는지, 잘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체육 관련 외부 활동으로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와 가까운 강동, 송파, 광진 등의 노인복지관이 많습니다. 이곳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이나 운동프로그램 봉사를 신청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직접 해보면 노인체육이 본인의 적성과 맞는지도 생각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원 동문(좌측, 노인체육복지 17)이 회원에게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Q. 노인체육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A. 생활체육지도자나 건강운동관리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시면 좋습니다. 교내에서 사회복지론 수업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노인체육 지도에 도움이 됩니다.

Q. 노인체육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A. 인성이 밝고 어르신과 상호작용을 잘하는 사람이 노인체육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상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분들을 상대로 운동을 지도하다 보니 자신의 의욕을 앞세우지 않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Q. 선배님은 학부 시절이나 졸업 후, 노인 체육 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나요?

A. 학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노인복지관에서 40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학부 시절부터 수영을 꾸준히 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인체육기관에 종사하기 위해 추천하는 운동은 당구, 골프, 탁

구, 수영, 요가, 뉴스포츠, 맨몸 운동 등 격렬한 움직임을 요구하지 않는 종류의 운동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배워놔도 노인체육 지도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Q. 노인체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노인체육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노인체육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재학중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미 많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노인체육 분야로 오신다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가 한국인가요?

○○포레샤인, ○○레이크아레나파크센트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이름이다. 여기는 과연 한국이 맞을까? 이러한 외국어 사용은 스포츠 용어나 중계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윈(승리), 밸런스(균형) 등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어의 남용이 그 사례이다. 또, 골프에서 외래어 오용으로 인한 혼란도 있다. 이러한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며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지난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다. 이를 맞아 10월호에서는 스포츠와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어가 우리말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알아봤다.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알고나 쓰자, 외래어와 외국어의 차이

본격적인 외국어 남용을 논하기에 앞서 외국어와 외래어의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자. 외국어와 외래어를 분류하는 기준은 ‘대체 가능한 국어 어휘의 유무’이다. 먼저,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다. 흔히 사용하는 브이로그(영상일기), 언박싱(개봉기), 퍼스널 컬러(맞춤 색상) 등은 외국어로, 한글로 충분히 바뀌 쓸 수 있다. 반면, 외래어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를 뜻한다. 예를 들어 야나운서, 텔레비전, 컴퓨터, 택시 등은 외국어지만, 교체 가능한 한국어가 없어 이대로 우리말처럼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래어의 사용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어는 한국어로 변환 가능하기에 지양해야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이름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로 이뤄져 있다.

출처: 한국일보

영어가 남발하는 스포츠 중계

스포츠 중계는 시청자들에게 경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외래어와 외국어가 우리나라의 스포츠 중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중계 중 사용되는 여러 용어와 표현은 한글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외래어와 외국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면 국내 및 국제 관중 모두에게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쉽지 않다. “이번 경기 스타팅 라인업은...”, “밸런스가 좋군요.” 등 스포츠 중계를 통해 자주 접하는 외국어의 일종이다. 각각 “이번 경기 선발 명단은...”, “균형이 좋다.” 등으로 충분히 바뀌 쓸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중계 전문 채널 ‘SPOTV’에서 스포츠 중계방송 현장 진행자(스포츠 캐스터)로 활동 중인 변효성 동문(스포츠청소년지도 11)은 “방송을 보는 주 시청자들이 세계화된 사회를 살고 있다. 영어가 제2의 언어일 정도로 편하게 쓴다는 뜻이다.”라며 “그러한 시청자의 특성을 고려해 중계를 하고 있다.”라며 스포츠 중계 시 외국어 사용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 중계에서 한글을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어와 정확하게 호환되는 단어를 찾기 어렵다.”라며 한글 사용 시 중계 진행에 어색함이 생길 것이라 전했다. 다만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등은 지양하고자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입맛대로 굳어진 골프 용어

스포츠 용어 자체에서 오는 혼란도 존재한다. 스포츠 용어 중 외국어의 비율이 높는데 스포츠 용어가 관행적으로 잘못 굳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홀 주변으로 공이 가까이 가면 ‘오케이(OK)’라고 한다. 이는 ‘공을 주워둬 된다.’라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오케이(OK)’가 아닌 ‘컨시드(Concede)’라고 표현해야 한다. 또, 공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을 때 ‘볼(Ball)’이라고 외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포

얼(Fore)’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다. 그물이 쳐져 있는 연습장도 ‘인도어(Indoor)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빙 레인지(Driving Range)’가 옳은 표현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골프부 윤지성 학우(체육 20)는 아마추어들이 골프 용어 사용에 있어 그들의 입에 맞춰 변형시키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용어의 원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글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부학 용어중 한자어로 됐던 구용어가 우리말인 한국어로 바뀐 사례이다.

온갖 외래어와 외국어가 판치고 있으나 한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분야도 있다. 해부학계는 최근 구용어(한자어)에서 신용어(우리말)로 바뀌며 우리말 사용을 권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운동과학용어를 강의하는 전유정 교수는 구용어에서 신용어로 바뀐 일이 스포츠과학자들이 이론 중요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또한 신용어로 바뀌며 전문 스포츠인이 아닌 일반인도 용어에 대해 거부감 없이 받

아들이기 쉽게 됐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지구촌이라는 세계화가 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외국어에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국어를 멀리하기보다는 우리말을 사랑하며 대표적인 여러 언어는 통합적으로 알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용어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은 밀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학생들에게 밀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우리말 ‘신조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신조어가 난무한다. 심지어 네이버에는 신조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평가하기 위한 퀴즈도 존재한다. 맑눈광(맑은 눈의 광인), 교배교(교수 바이 교수=교수 마다 다르다), 쳐돌이(덕후), 오저치고(오늘 저녁 치킨 고=오늘 저녁 치킨 먹으래), 텅장(텅 빈 통장)등 출처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말들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한 줄임말도 횡행하고 있다.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의 줄임말로 처음 들은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대체 이러한 신조어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 오재훈 학우(노인체육복지 23)는 “친한 친구 사이라면 딱딱하게 길게 쓰기보단 짧게 쓰는 것이 더욱 친근감 있게 느껴진

다”라고 말했다. 이영수 학우(사회체육 22)는 ““(중꺾까(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분종카(분위기 좋은 카페)’ 등 원래 있던 단어보다 단어가 짧거나 입에 붙어서 쓰기 편하다. ‘어쩔티비’나 ‘폼 미쳤다’ 등 썼을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쓰면 유쾌하고 재밌는 표현도 많아 사용하는 것 같다.”라며 의견을 표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에서 소통할 때 우리 말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 알아듣는 국민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히 사적 언어생활에서 신조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언어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체대, ‘척 보면 딱’ 알고 싶어요

이러한 외국어 사용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내의 메타버스 도서관에는 4가지 공간이 있다. ‘퍼스널 랩(Personal lab)’, ‘스페셜 랩(Special lab)’, ‘북 커먼스(Book commons)’, ‘프로젝트 룸(Project room)’으로 각각 불린다. 하지만 이 공간의 이름은 단번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우 5명에게 ‘메타버스 건물안 공간 이름을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5명 모두 “한 번에 알아채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 ‘랩(Lab)’이라는 단어는 실험 또는 연구를 뜻하는 레버러토리(Laboratory)의 준말이다. 그렇기에 ‘퍼

스널 랩’은 ‘개인 실험실’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개인 실험실’이라는 한국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멋을 위해 영어를 쓰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것뿐만 아니라 교내 포스터들에도 수많은 외국어가 사용된다. ‘siner-gy’, ‘레벨 up 영어특강’, ‘2023 IF World camp’, ‘Speech contest’ 등이 교내에 붙어있다. 학우 5명에게 ‘포스터가 어떤 내용을 홍보하는 것인지 이해가 쉽나?’라는 질문에 5명 모두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의미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외국어의 사용으로 인해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포스터 또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메타버스 도서관 내 총발 용도를 그려둔 안내판이다. 충분히 우리말로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가 한국으로 느껴지도록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의 동상이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말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사진: 이세은 수습기자

한글문화연대는 한국어와 한글, 한글문화를 지키고 가꾸고자 만들어진 시민단체이다. 한글문화연대 이진범 대표는 “미국과 많은 교류를 해왔기에 ‘영어를 잘 쓰면 좋다.’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며 우리나라의 외국어 사용이 높아지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

보통신산업 발달로 인해 영어 단어를 우리 말에 섞어 쓰는 풍조가 자주 늘어나게 됐다.”라 했다. “뉴스나 영화 같은 대중매체에서 외국어의 사용률이 높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외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까? 이 대표는 “외래어가 아니라면 인터넷과 사전을 활용하여 우리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 외국어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라며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어만 잘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한글문화연대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말 기관 역시 외국어 남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에서 공문서에 영어나 로마자 알파벳 대신 한국어와 한글로 쓰게 하는 ‘쉬운 우리 말 쓰기’등과 같은 정책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국어학자, 시민운동가, 경제연구원, 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새말 만들기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듬은 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18,109건의 다듬은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글문화연대 역시 ‘한글날 맞이 외국어 대청소 작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여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된 외국어를 찾아 바꾸기를 대회를 진행하였다. 대회에서의 상 이름도 ‘세종대왕상’, ‘한글상’, ‘옴슴상’, ‘버금상’, ‘보람상’등으로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과 순우리말을 사용해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기자생각

우리말이 빛나기 위해서는

한글날이었던 10월 9일 그날에도 한국의 간판들은 외국어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의 것을 남발하는 문화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어 사용만을 고집하고 싶지 않다. 외국어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생활의 전달 즉 대체어가 담지 못하는 어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기에 외국어와 외래어 그리고 한국어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신조어 등과 같은 특정 세대에게만 이해되는 단어들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자 의사소통 도구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빛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한국어를 사용하러 노력하자.

편집장레터

야! ‘니’만 바빠?



한지용 편집장

“하, 왜 이렇게 바쁘지?” 올해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편집장도 모자라 2학기에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부회장까지 맡은 후부터는 더욱 자주 내뱉었다. 절친한 동기는 내 한탄을 들을 때마다 “야! ‘니’만 바빠?”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애정 어린 욕설과 함께.

동기의 말이 옳다. 나만 바쁜 것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정신이 없다. 동기들은 각자의 커리어를 위해 중형무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접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 역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느라 연락이 드문드문 해진 지 오래다. 모두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채.

바쁘게 살다보면 자신의 일상에만 몰두하기 십상이다. 남의 일과 세상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그럴 만하다. 고된 하루를 보낸 뒤 집에 돌아와 세상일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다. ‘알빠조?’란 말이 유행이다. 내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

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힘든 일을 겪든 말든 내가 알게 뭐가.

저러한 말을 들을 때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기자들은 ‘남’을 취재한다. 기자들은 남의 이야기가 독자에게 닿아 작은 변화라도 이뤄지길 바라며 기사를 쓴다. 나도, 우리 학보사 기자들도, 모든 언론인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힘이 쭉 빠진다. 나는 무의미한 일을 하는 걸까.

무관심한 이들의 심정도 이해한다. 지루한 뉴스보다 재밌는 일이 너무 많다. 운동, 공부, 과제, 대외활동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뉴스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뉴스나 기사를 보면 ‘물지마 살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저출산·고령화’ 등 보기만 해도 피로감이 두 배가 되는 말들뿐이다. 스트레스만 늘어난다. 재밌는 유튜브나 봐야지.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자세히 알아봤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맞다. 저 이슈를 안다고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이 언젠가 당신이 겪을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길을 걷다 아무 죄 없이 칼에 찔리는 억울한 이가 당신이 될 수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나라 물가에 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 각박해질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질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 세대다.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많으나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본다고 뭐가 바뀌나? 다만, 변화의 씨앗은 될 수 있다. 누군가 뉴스를 보고 묻지마 살인 범죄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혼자만의 생각이라든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나 같은 뉴스를 보며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까지 늘어난다면 어떨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의견, 즉, 여론이 된다. 여론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론보다 공정한 사회 변화의 계기는 없다.

그러나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여론 형성은 어렵다.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선 여론을 통한 변화가 절실하다.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란다. 사회가 이미 병들었다고 방관하지 말자.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이다. 아무리 바빠더라도 당신, 그리고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남’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응? 난 너무 바빠서 싫다고? 야! ‘니’만 바빠?

기자석 I

운동하는 사람은 다 똑같나요



이선우 기자

‘양아치, 영업사원, 싸가지 없는’. 근래 헬스 트레이너 앞에 자주 붙는 수식어다. 헬스 트레이너들 중에는 체육 전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헬스 트레이너를 목표로 하는 학우들도 많다. 또 우리 학교 웨이트장에 가면 많은 학우가 헬스를 즐기고 있다. 즉 앞서 언급한 수식어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대생이라면 한 번씩은 헬스라는 운동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헬스장에 가보면 PT(Personal Training)를 진행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PT는 한 회에 5-10만 원 정도로 매우 비싸다. 하지만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에 비해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실제 PT 후기를 찾아봐도 “트레이너가 수업 시간에 늦고 당일 날 수업을 취소하는 일이 많다.”, “수업 중 핸드폰을 사용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등의 불만 섞인 후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나 역시 개인 PT를 받은 경험이 있다. 등록하기 전까진 매우 친절했으나 결제 후에는 무관심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지켜야 하는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PT를 등록하지 않으면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도 겪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이러한 태도 때문에 체육 전공자들을 향한 선입견이 생기는구나’라고. 체육전공생들만 모아둔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은 어떠할까?

“운동만 한 애들은 무식하고 예의 없다.” 체대 진학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슬픈 일이지만 한 학기 조금 넘게 학교를 다니며 느낀 바로는 그러한 선입견이 왜 생겼는지 알 것도 같다. ‘강약각강’의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학우들도 있었으며 교수님이 지나가도 본체만체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수업 중 교수님이 강의를 진행하실 때 바로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을 사용하며, 선배들과의 약속에서 시간 약속을 어기는 등 기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학우들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사회로 나간다면 분명 ‘운동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이야기

가 나올 것이 뻔하다. 헬스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이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열정과 사명을 갖고 임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다. 주변을 살펴보면 예의 바르고 선한 학우들도 정말 많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대학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대학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운동만 할 줄 아는 애들 모아둔 대학이다.’, ‘무식한 애들 밖에 없다.’ 등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단 한 명의 행동으로 인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 반대로 한 명의 좋은 행동으로 인해 단체가 달라 보일 수도 있는 법이다. 자신부터 평소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지 생각해보자. 만약 아니라면 나부터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한국체육대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한국체육대학교의 이미지가 곧 체육계의 이미지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개개인이 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석 II

韩国人(Hánguó rén) 일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취재기



김수빈 특임기자

아무 지원 없이 학생기자끼리 떠난 항저우는 온통 낯선 것들로 가득했다. 기차역 노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간 호텔은 영어도 통하지 않았다. 번역기 어플로 겨우겨우 입성한 방은 박쥐 소동으로 이틀 만에 방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경기장에서 짐 검사를 하는 사이 누군가 티켓을 가져가는 일도 있었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건네지는 낯선 말들은 곧 한 단어로 바뀌었다. ‘韩国人’(한궈런) 그렇다. 우리는 14억 명이란 압도적 숫자에 긴장된 걸음을 내디딘 9명의 한국인이었다.

우리가 취재한 첫 경기는 흔히 볼 수 없는 근대5종이었다. 관객석에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고, 활영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우리 대학 선수가 언제 나올지 기다리며 바짝 긴장한 상태였고, 승마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이 연달아 낙마하거나 실패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낙마한 선수는 전광판에 DNF(Did Not Finish)라고 뜨는데, 처음에 아무도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옆에선 수없이 쏟아지는 짜오(加油, 야자!)에 잠시 생각이 어지러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별생각 없이 입고 나온 학교 옷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연히 들은 “여? 네네 한국체육대학교 학



항저우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서 한국체육대학보 기자단 9명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

생이야?”라는 한마디에 말이다. ‘한국체육대학교’ 체감할 일 없이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했던 소속감이다. 마스크가 피부와 같은 20학번에겐 더욱, 입학한 지 4년 만에 타지에 와서 느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우리를 부른 이는 아주 머나먼 선배였다. 입고 온 옷을 보고 학생임을 알아본 것이었다. 함께 있던 다른 이들도 대부분 우리 대학 출신의 협회 관계자였다. 그들은 타국까지 취재하러 온 우리를 기특히 여겼다. 경기 내내 궁금했던 규칙에 대해 질문하고, 소통하며 한층 나은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동문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한국인들은 호의를 베풀었다. 난 간에서 후배들이 외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왔어요!”라는 말에 올라와 인터뷰까지 해준 선수 역시 그랬다.

그 뒤로 기자들은 가지고 온 학교 옷을 입고 취재에 나섰다. 그렇게 한국체대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보란 이름으로 다가가았을 때, 대부분 선수가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공식 취재진이 아니면서도 하나의 공통점 아래 성실히 이루어진 대화를 최대한 잘 다듬어 SNS에 올린 것도 그 이유에서였다. 그들이 우리가 한국체대이기에 열심히 대답했듯, 우리도 그들이 한국체대이기에 더 빛나길 바랐다. 그랬기에 속보

를 띄우고, 빠르게 기사로 바꾸고, SNS 스토리로 이를 홍보했다. 기사 중 일부는 중앙일보와 합작한 기사로 포털사이트에 올라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에게 전달됐다. 이는 우리가 고된 취재 일정을 반복할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직접 가지 못한 경기 또한 숙소에서 지켜보며 선수들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간절히 응원했다. 기사를 쓰기 위함이었지만, 피땀 흘리며 학교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아른거렸기에. 그래서 아쉽게 메달을 놓치거나, 은메달을 딴 선수와 하는 인터뷰는 질문지를 짤 때부터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그러나 의연하게 답하는 선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답하게 질문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렇게 마지막 기사까지 우리는 단단해지기 위해 애썼다.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10월 7일, 마침내 마무리 기사를 인터넷 학보에 올렸을 때, 안도와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본보 소속으로 진행한 필자의 해외 취재는 여기서 끝이었지만, 한국체육대학보는 이제 한 걸음 시작했을 뿐이다. 항저우에서 파리로, 또 파리에서 무궁무진한 경기장으로 향할 기자들을 향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취재기를 마친다.

기자석 III

10년이 넘도록 책을 펼치는 이유는



김채람 수습기자

“너는 책을 왜 읽어?” 편집장의 물음에 헛사리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책과 꽤 친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독서의 이유는 잘 모르겠다. 만 6세의 나이에 한글을 떼고 책을 읽기 시작한 지 벌써 십수 년째. 우리는 그동안 무슨 이유로 책을 읽어야 했던 것일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그 첫 번째, 책에는 많은 인생이 담겨있다. 소설 속 인물의 삶과 감정을 독자는 간접 진출을 간접히 응원했다. 기사를 쓰기 위함이었지만, 피땀 흘리며 학교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아른거렸기에. 그래서 아쉽게 메달을 놓치거나, 은메달을 딴 선수와 하는 인터뷰는 질문지를 짤 때부터 조심스럽고 어려웠다. 그러나 의연하게 답하는 선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답하게 질문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렇게 마지막 기사까지 우리는 단단해지기 위해 애썼다. 때문에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10월 7일, 마침내 마무리 기사를 인터넷 학보에 올렸을 때, 안도와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본보 소속으로 진행한 필자의 해외 취재는 여기서 끝이었지만, 한국체육대학보는 이제 한 걸음 시작했을 뿐이다. 항저우에서 파리로, 또 파리에서 무궁무진한 경기장으로 향할 기자들을 향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취재기를 마친다.

서 촛불을 하나씩 켜가는 것과 같다. 자신을 알면 겨우 하나의 촛불이지만 백 개의 인생을 알면 백 개의 촛불이 빛을 비춘다. 이처럼 독서는 주변을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준다.

어느샌가 인류는 자신의 정보를 뇌 밖으로 꺼내 적기 시작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구가 늘어나며 지식과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책을 읽는 두 번째 이유, 독서는 정보의 습득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저자의 지식과 고민이 묻어 있다. 책을 읽고 동일한 정보를 아는 것은 공통의 문화를 갖게 한다. 또한,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점차 보완된다. 오랫동안 축적돼 내려온 정보는 점차 쌓여 우리의 생각을 깊게 만들어 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 시장, 경제, 과학 기술과 발명 등.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식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다. 매년 새로워지고 복잡해지는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책을 읽는다.

책을 읽는 세 번째 이유는 독서란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과도 같기 때문이다. 여행에선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시간을 보낸다. 솜사탕 모양 구

름과 열대 과일의 색깔, 알아보지 못하는 메뉴판,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찬 타지의 향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건넨다. 이처럼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다. 독서도 마찬가지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상과 멀리 떨어진 여행지로 향하는 것과 같다. 책은 멈춰있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우리다. 이는 책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 골목 사이사이로 떠나는 여정이다. 그곳에서 내게와닿는 하나의 구절, 타지에서 가져온 기념품과 같이 책이라는 모험 후 일상으로 돌아와 갖게 되는 아주 작은 기억과 감정이 있다. 그것은 다시 현실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책은 삶이라는 긴 마라톤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책을 읽어야만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는 사람만 똑똑한 것도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한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고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렇다. 결국, 책은 꼭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더욱 넓고, 깊고, 여유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내게 독서의 이유를 다시 묻는다면 이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snu.ac.kr

발행인 | 문원재 주 간 | 김현정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현석·박정운·이선우·백종훈·송차호·이세은·김채람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 | (02)410-6556

미래 없는 20대 소비습관, 이대로 괜찮은가?

젊음의 상징인 강남과 홍대에서는 비슷한 패션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이 한 벌에 50만 원이 훌쩍 넘는 명품을 입고 지나간다. SNS에는 오마카세와 호캉스 등을 즐기고 있는 사진들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알바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대 월 평균 소득은 약 67만 원에 불과하다. 명품이나 오마카세, 호캉스를 즐기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20대들의 소비문화 이대로 괜찮을까?

이선우 기자 sunwoolee4747@naver.com

20대들의 율로(YOLO) 문화



지하철 한 칸에만 5명의 사람이 고가의 신발(약 15만 원)을 신고 있다. 비싼 가격임에도 유행하는 제품은 꼭 구매하는 20대들의 소비습관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과소비 행태가 점차 과열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대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의 인생을 즐기자는 ‘율로(현재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로,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용어)’ 문화가 확산되며 최근 20대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지향하는 소비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과시한다’는 의미를 지닌 ‘플렉스(Flex)’ 문화까지 더해지며 20대의 과소비 행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대와 대학생들의 소비는 주로 일회성, 쾌락, 흥미를 위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거 대학생의 소비는 생활비, 교통비, 생활용품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10년 전

과 비교했을 때 즉흥적인 소비 문화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

이를 묻기 위해 경제학 전공 안상선 교수를 만나보았다. 안상선 교수는 10년 전 20대와 지금 20대들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저축하지 않는 집’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서울, 경기 집값이 이 정도로 비싸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저축한다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집값이 10억이 넘어간다. 저축으로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에 행복만 추구하는 문화가 퍼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가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미래 없는 소비를 하는 20대를 변호할 수 없다. 그렇다면 20대는 어디에 주로 소비하는 것일까?

명품, 20대들의 필수품?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명품 소비 문화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0대의 소비 생활’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94명이 응답했다. 설문 연령대는 20세부터 26세까지 다양했다. 학우들에게 20대들의 소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하다’가 61.7%로 가장 많다. 이러한 답변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명품을 입고 다니는 연령층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주변에 명품이나 비싼 옷을 입는 친구들이 늘었다.”라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제시한 학우들도 있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못

하는 건 통제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20대 사회초년생들은 보통 부모의 용돈 및 아르바이트 비용을 토대로 생활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소비 비용을 해결하는 방안은?’에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는 답변이 53.2%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용돈으로 해결한다는 답변이 26.6%로 뒤를 따랐다. 보통 준명품은 20~60만 원은 되며 명품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듣는 학생이 식비, 교통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충당하며 명품까지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 즉, 20대들은 명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경제력에서 벗어나는 소비까지 서슴지 않는다.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 떠오르는 문화가 있다. 바로 ‘리셀(Resell)’이다. 리셀이란

희소성 있는 상태 좋은 중고 명품을 초기 발매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특히 20·3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대학생들의 소비가 늘어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시민들에게 20대들의 소비에 관한 생각을 묻기 위해, 기자가 직접 젊음의 거리인 강남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시민은 “과거에 비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 20대들의 씹씀이가 더 커진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시민은 “20대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SNS에 올리기를 위한 과시 소비를 하는 게 안타깝다.”라며 지적했다. 그렇다면 20대들의 과시 소비, 결정적인 이유가 정말 SNS인 것일까?

너무 다른 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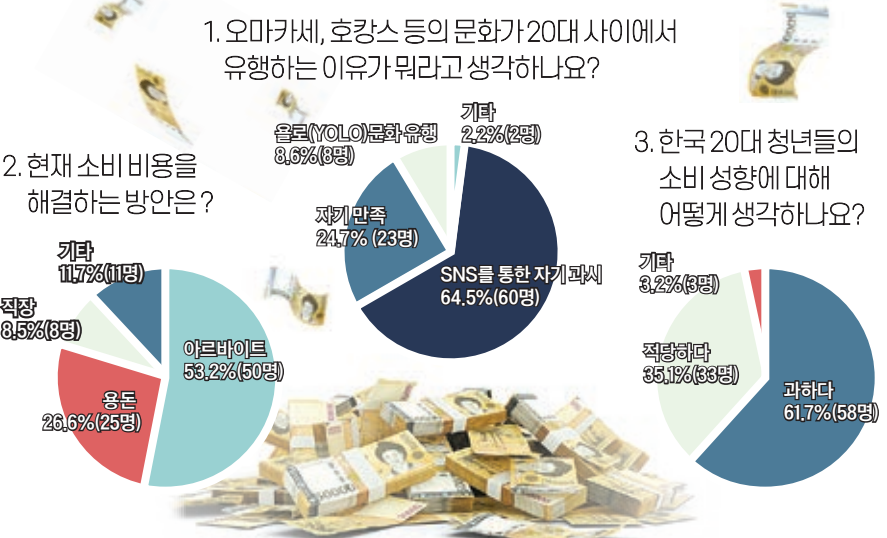
이태영 학우(좌측)가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학교에서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먹고 있다. A 학우(우측)의 한 달 지출 내역이다.

이제 갓 사회로 나오게 된 청년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갓 20살이 된 대학생 두 명을 만나보았다. 먼저 무지출 챌린지에 관심이 있고 돈을 절약하는 이태영 학우(사회체육 23)를 만났다. “상업고등학교 금융경제과를 졸업하여 인문과목보다 회계, 금융에 관련된 과목을 주로 배웠다. 자연스럽게 저축, 투자, 개인자산관리에 눈을 뜨며 내 미래의 소비습관 및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라며 자신의 소비 관념을 밝혔다. 이어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타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20대의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소비습관은 나고 자란 환경과도 관련이 있

겠지만 교육 과정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학우는 하루 동안 교통비와 식비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다. 교통비를 줄이기 위해 광역버스보다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며, 식비를 줄이기 위해 커피를 사 먹지 않고 집에서 내려오거나,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 동아리방에서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공부를 할 때도 웬만하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편이며 헬스장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체육관을 주로 이용한다. 반면 저축에 큰 관심이 없는 같은 20살 A 학우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재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월 60만 원 정도 벌

고 있다. 하지만 한 달에 지출로 250~300만 원 정도 소비하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했다. 과소비의 이유를 묻자, “친구들과 놀거나 밥을 먹을 때 먹고 싶은 것은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끼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소비 관념을 밝혔다. 이어 자신도 과소비를 인지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걸어가도 될 거리를 비싼 교통수단에 의존하거나 쇼핑할 때 계획하지 않은 소비를 한 번에 많이 할 때가 잦다고 전했다. 두 학생은 같은 나이이다. 심지어 같은 동네에 살지만, 소비에 대한 관념은 완전히 달랐다. 이 둘을 보면 어떠한가? 누가 바람직한 소비일까?

SNS가 낳은 패배, 과시 소비



우리 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다. 각각 오마카세와 호캉스 등의 문화 확산 이유, 현재 소비 비용을 해결하는 방안, 20대 청년들의 소비 성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물었다.

20대 과시 소비의 문제점은 자기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돈을 많이 써서 물건을 사는 것이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매했던 명품이 학생들 사이에서 돈을 아끼고 모아 하나쯤은 소장해야만 한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명품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에 평균적으로 5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도 보편적인 문화가 됐다. 또한, 1박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일명 ‘호캉스’도 유행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시민들에게 20대들의 과시 소비 이유에 대해 묻자, 대부분의 답변이 ‘SNS의 영향’이라고 답했다. 한 시민은 “SNS에 잘 살고 잘 먹는 일상만 올리다 보니 나 역시 남을 의식해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오마카세나 호캉스는 SNS가 없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화이다. 남에게 자신의 생활을 보여주기 위한 사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SNS가 과시 소비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도 이러한 일회성 과소비를 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다. ‘SNS를 통한 자기 과시’가 65.6%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기만족’이 24.6%로 뒤를 이었다. 안 교수는 이런 20대의 일회성 과시 소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20대들의 일회성 과소비는 결국 미래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명품 패션, 호캉스 등 비싼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거나 과시 소비를 생활화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과시 소비를 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까지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과도한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서



10월16일, 시민들에게 ‘20대 소비에 대한 인식’을 묻기 위해 기자가 직접 강남으로 길거리 취재에 나섰다. 거리에서 만난 직장년층 시민들은 현 20대의 과소비를 지적하며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마다 소득도 다르고 지출 역시 다르다. 또 집안 사정 역시 다를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태영 학우도 명품에 돈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그는 “최근에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 것은 어머니께 선물해 드릴 명품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다. 당월 임금된 돈에서 급하게 지출한 것이 아닌 3달 전부터 계획해 조금씩 돈을 모아왔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부담이 될 정도의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돈’의 유용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소비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학우는 “만일 고등학교 때 금융과 경제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부모님께 충동적인 소비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나 또한 으레 20대와 같이 과시적인 소비를 반복했을 것이다.”라며 주변 환경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 교수는 가치 소비를 언급했다. 가치 소비란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거나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하고, 지향하는 가치의 수준은 낮추지 않는 대신 만족도 등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지칭한다. 안 교수는 어떤 소비든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소비라면 이유가 있는 소비라고 말했다.